

2015 제51호

속기계



사단
법인

대한속기협회



표지설명

꽃을 보면 왜 보지만 해도
미소가 절로 나올까요? 다른
벚꽃과 달리 늦게 피어나고
질 때는 거의 꽃폭탄을 날리는
'겹벚꽃'을 보며 우리도 잠시
미소를 지어봅니다.

사 진 안기철

CONTENTS

2015 **속기계** 제51호

- 04 **머리말**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 주기를 - 이철우
- 06 **인사말**
희망의 빛을 틔우는 힘찬 발걸음을 - 조영기
- 08 **안녕! 우리말** - 유준호 기자
- 12 **2014 인터스테노**
제50차 INTERSTENO, 중국 기행 - 하대경
- 20 **연구논문**
한글속기 직무분석 및 자격체계 개선방안 - 이경식
- 36 **인터뷰**
반갑습니다! 중의원 기록부 직원 인터뷰 - 홍보부
- 46 **기자수첩**
기획코너! 채강희 님 인터뷰 - 홍보부
외국의 속기업무 현황(미·일법원) - 황유진 기자
- 61 **세미나**
나의 잊지 못할 세미나 - 박우찬
- 66 **새의자**
봄비 내리는 날의 일기 - 김영중
보스(Boss)가 아닌 리더(Leader)가 되고자 - 문선희
- 70 **새내기 인사**
끝까지 간다 - 정은일
끝이 아닌 시작 - 손아영
될 때까지 한다 - 조지용
- 83 **속기사 이야기**
2014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실시결과 보고 - 권오정 기자
- 90 **회원동산**
둠의 의미, 가족의 의미 - 안기철
보좌진이 본 속기사, 공생관계 - 박대길
아프리카·중동 해외국감을 다녀와서 - 이수경
- 104 **협회 동정**
제48회 정기총회
- 106 **편집후기**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켜 주기를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속기협회 회장 이철우입니다.

어느새 여러분과 인연을 맺은 지도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낯익은 얼굴, 다정한 얼굴도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신록 우거진 5월의 한글속기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협회가 계획한 여러 사업들이 회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 속에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해 50호가 발간된 '속기계'는 올해에도 협회와 회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 소통과 화합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어 줄 것입니다. 또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INTERSTENO 총회와 국제속기경기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협회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한국을 알리는 데도 한몫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한글속기무료강습과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협회는 더욱 발전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협회 회장으로서 국제속기경기대회 참가자를 선발하기 위해 국내 예선전과 준결승, 결승전을 치르고 뽑힌 선수들에게는 특별한 애정과 기대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회원 여러분!

제가 대한속기협회 회장직을 맡으면서 ‘기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은 물론, 덕분에 국회 회의록을 볼 때마다 그 중요성에 더욱 공감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이 있을 때 가장 공신력 있는 기록물은 역시 ‘속기록’ 이기에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또한 저 역시 회장으로서는 가슴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왜 속기사를 ‘현대판 사관’ ‘기록의 마법사’ ‘말의 사진사’ 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양과 정확성·진실성을 인정받아 세계(유네스코) 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선왕조실록은 역사의 정직한 증거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현재가 아닌 먼 훗날에 더욱 그 가치가 빛나고 평가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의해 우리의 현정사는 60년 이상 기록되고 있고 앞으로 조선왕조실록처럼 그 값어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속기인 여러분!

영상매체의 발달과 음성인식 기술의 진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기록 수단의 다양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록문화도 끊임없이 발전하며 동시에 기록의 중요성 또한 무척 높아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속기협회는 전통과 기본을 지키며 우리의 것을 더 계승 발전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역사의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사랑하는 속기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대한속기협회 임원진과 집행부 모두는 앞으로도 회원님들의 뒤에서 항상 노력하며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 장 이 철 우



희망의 빛을 띄우는 힘찬 발걸음을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속기협회 이사장 조영기입니다.

이사장으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지 6개월 여가 지났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점투성이입니다. 더군다나 외부에 나와 있게 되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만 회원 여러분과 특히나 국회 내에 계신 임원진 및 집행부 여러분께서 따뜻한 성원과 든든한 지원으로 저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기에 협회를 위해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올 을미년은 청양(靑羊)의 해로서 양이 초원의 풀을 마음껏 먹는 평화로운 해라고 합니다. 유난히도 춥게만 느껴졌던 차가운 겨울의 기운을 밀어내고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희망의 봄이 왔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평화롭고 기쁜 일만 쭉쭉 자라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는 커다란 사건, 사고가 유난히 많아 온 국민이 가슴 아프고 힘든 해였습니다마는 회원 여러분의 희생과 서로에 대한 배려의 마음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협회 사업들을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협회 집행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고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속기계는 '보다 더 빨리'와 '다양한 부문으로의 서비스'가 요구되고 있고, 수요는 갈수록 커지는데 인적·물적 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대우와

위상 또한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칩니다. 마치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뒤집으면 '위대한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협회를 구심점으로 회원 여러분 모두 하나로 똘똘 뭉쳐 미래에 대한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미래 발전의 '위대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대한속기협회 회원 여러분!

5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글속기학술세미나'와 작년에 우리 협회 위탁사업으로 선정된 '지방의회 한글속기실무자과정'을 통하여 속기인으로서의 업무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넓히고 회원 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입상자들과 함께 참석하게 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되는 '인터스테노 총회 및 IPRS'를 통하여 한글속기의 우수성 및 국위를 다시 한번 선양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 '한글속기무료강습' 등 속기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속기의 새로운 영역 발굴 및 예산 확보에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협회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발전한 우리나라의 행보를 기록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회원님들의 훌륭한 공적을 이어 국회회의록 작성 100주년에 즈음해서는 국회회의록이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협회를 중심으로 초석을 다지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님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협회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장이나 집행부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으로 모두 함께 화합해 주신다면 더 멋진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신선한 제안이나 따끔한 질책 모두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희망의 빛을 틔우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싶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꿈과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고 건강하시기를 거듭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조영기



안녕! 우리말

안녕! 우리말

*속기계 51호에서는 우리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안녕! 우리말' 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유준호 기자



안녕! 우리말

‘안녕! 우리말’ 운동이란?

‘안녕! 우리말’은

심각한 언어 파괴로 상처받은 우리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의 이름입니다.



안녕! 우리말 주요 활동들

정부 쉽고 바른 공공언어 쓰기 운동

보도 자료, 공고문 등의 공문서 바르게 쓰기와 행정용어 순화를 통해 국민들께 정부 정책을 쉽게 알려 드립니다. | **정부대변인협의회** |

국어책임관을 통한 지역 국어 능력 향상

지자체 조례 제정, 지역 언어 환경 개선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 **지자체** |

지역민과 함께하는 전국 국어문화원연합회

전국 국어문화원이 지자체 국어책임관과 함께 지역어 보존 및 언어환경 개선, 국어 교육 등 지역 언어문화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전국 20개 국어문화원** |

언어문화개선 알림 운동

지상파 공익 광고 및 기획 프로그램, EBS 인성e 다큐, 지하철·KTX 차내 광고 등 제작·방송을 통해 언어문화개선의 필요성을 알립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과 함께하는 ‘안녕! 우리말’ 대축제

‘안녕! 우리말’ 콘서트, 연극제, UCC 공모전, 창작 경진대회 개최 등으로 교훈을 주고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 축제를 엮는다. | **아나운서연합회, 학교, 수련시설** |

사이버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선을 릴레이 캠페인

전국 100만 선을 봉사단 활동으로 깨끗한 사이버 언어를 만듭니다. | **선물운동본부** |

청소년 언어문화 인재 양성

우리말 가꿈이, 언어 지킴이, 우리말 사랑 동아리 지원 활동 등 청소년 언어문화를 선도할 인재를 양성합니다. | **국어 단체, 수련 시설** |

유명인, 전문가의 재능 기부 활동

바른 말 전도사 아나운서와 국립국어원 전문가들이 청소년을 찾아가 공감하고 소통합니다. | **KBS 아나운서실, 국립국어원** |

언어 환경 가꾸기

공공기관 누리집, 도심 거리 간판, 영어 지상주의 풍토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우리말 파괴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을 유도합니다. | **국어 단체** |

‘안녕! 우리말’을 소개합니다.



안녕! 우리말

‘안녕! 우리말’ 상징물의 의미

‘안녕’의 ‘안’을 눈, 코, 입으로 형상화하여 한글 자모 조합의 묘미를 살렸습니다. 밝고 경쾌한 색깔을 사용하여 ‘안녕! 우리말’과의 만남에 대한 즐거움을 표현하였고, 얼굴 혹은 말풍선을 형상화하여 대중에게 쉽고 친근하게 다가갈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리말을 맞이하는 뜻을 나타냅니다.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

어려운 공공언어,
선정적·폭력적인 방송·인터넷 언어,
욕설과 비속어가 난무하는 청소년 언어,
우리말과 글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말과 글은 우리의 얼굴이고
문화용성의 토대입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이제 우리말과 글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뜻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말이 안녕한지 안부를 묻는 데
함께 참여하지 않으시겠어요?



▷ 언어문화개선 범국민연합이란?

우리말을 사랑하고 가꾸어 가는 사회 각계 1,500여 개 단체들이 우리 사회의 언어문화 개선을 위해 뜻을 모아 참여한 연합입니다.

▷ 목표

바른 말, 고운 말, 품격 있는 말

언어생활 언어문화를 '바르고, 곱고, 품격 있게'
문화용성의 토대로서 우리말·글의 가치 높이기

▷ 10대 실천요강

공공언어 방송/인터넷 언어 청소년언어

공공부문

1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정책을 알립니다.

신문/방송

3 아름다운 방송 언어로 언어 환경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가정

7 격려와 위로의 가족 대화로 삶의 희망을 만듭니다.

2 국민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로 국민과 소통합니다.

4 국민 언어의 본보기로 삼을 만한 신문/방송을 만듭니다.

8 책 읽는 집 안 문화를 뿌리 내려 삶을 풍요롭게 가꿉니다.

인터넷

5 인터넷 공간에서도 배려와 존중의 예절을 지킵니다.

9 다정하고 따뜻한 말로 친구를 사귀입니다.

6 참되고 건강한 대화 공동체를 만듭니다.

10 부정과 불평의 말을 버리고 긍정과 감사의 말을 익힙니다.



▷ 범국민연합 대표 단체들

- 한국어문학술단체연합회 전국국어문화연합회
- 국어운동단체
-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 KFTA | 한국교총
- 한국어언어학회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의회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한대협)
- Korean Language Institute Council(KLIC)
- www.KLIC.or.kr
- 선문

누리집 www.urimal.kr

올바른 표준어

‘철수가 맨날 짜장면이 먹고 싶다고 하길래 다른 먹거리를 사 줬더니 빼졌다’
위 문장에서 표준어가 아닌 단어는 몇 개일까? 답은 0개이다.

국립국어원은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았던 단어들을 표준어로 인정했다.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이 제정된 이후 1988년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고시 후
변함이 없다가 2011년 9월, 2014년 12월 두 번에 걸쳐 추가된 표준어를 발표한 것이다.

〈2011.9.1〉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기에	~길래	만날	맨날	어수룩하다	어리숙하다
간질이다	간지럽히다	맨송맨송	맨송맨송/ 맹송맹송	연방	연신
괴발개발	개발새발	먹을거리	먹거리	오순도순	오손도손
거처적거리다	걸리적거리다	메우다	메꾸다	자장면	짜장면
끼적거리다	꼬적거리다	뫼자리	몯자리	찌뿌듯하다	찌뿌둥하다
날개	나래	바동바동	바둥바둥	치근거리다	추근거리다
남우세스럽다	남사스럽다	복사뼈	복숭아뼈	태견	택견
냄새	내음	새치름하다	새초롬하다	고운대	토란대
눈초리	눈꼬리	세간	세간살이	폼세	폼새
두루뭉술하다	두리뭉실하다	손자	손주	허섭스레기	허접스레기
목물	등물	쌈싸래하다	쌈싸름하다	횡허케	횡하니
떨어뜨리다	떨구다	아웅다웅	아웅다웅	토담	흙담
뜰	뜨락	야멸치다	야멸차다		

〈2014.12.15〉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표준어	추가된 표준어
개개다	개기다	딴죽	딴지	직장초/괭이밥	초장초
구안괘사	구안와사	빠치다	빠지다	장난감	놀잇감
굽실(거리다)	굽신(거리다)	사그라지다	사그라들다	허접스럽다	허접하다
꾀다	꼬시다	섬뜩(하다)	섬찝(하다)		
눈두덩	눈두덩이	속병	속얇이		



인터스테노, 중국기행

하 대 경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시간 관리를 가장 훌륭하게 지키고 수행하는 이들은 수없이 많이 존재해 있는 것 같다. 그중에 시간과의 싸움에서 지려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다. 대체로 인력을 통해 생산력을 요구하는 업체에서는 시간이 금쪽같이 돌아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시간은 곧 돈이라는 것으로 환산되는 것이며 이에 우리 속기사들도 시간 속에서의 기록사관이라는 직업관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기록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나라 속기사들도 시간 속에서는 때려야 땔 수 없는 역사 속의 귀중한 인재들이었다.

이 시간에는 지난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개·폐막식 참석차, 중국속기경기대회 참관을 위해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 한국대표단과 2014년 10월 21일~25일(4박 5일간) 김포국제공항 출발을 기점으로 중국 상해에서 있었던 시간 속에서의 바쁜 일정과 생각을 간략하게 적어 보고자 한다.

〈2014년 10월 21일(화) 1일차〉

김포국제공항으로 가기 위해 이른 새벽 시간부터 부지런을 떨었던 아침 시간, 출국장 2층 2번 게이트에서의 미팅에 늦을 새라 부지런히 갔건만 간밤에 내린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부슬부슬 내려 고속도로 차량이 평상시보다 많이 밀린다. 아마도 평일이고 비가 와서 그런지 차량이 밀리는 출근 시간대에 들어선 것 같다. 마음은 조급해지며 ‘빨리 가야겠는데……’ 하며 스스로를 다그치는데도 도로 위를 에워싼 차량들은 야속하게도 한두 대씩 늘어만 간다. 일정 시간이 흘렀을 무렵 비바람을 헤치며 조금 늦게 도착한 김포국제공항! 이미 일행분들은 도착한지라 괜

스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사)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대표단(회장:이주성)으로 구성된 우리 한국대표단 일행 16명은 1팀과 2팀으로 나뉘었다. 이번 일정은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개·폐막식과 함께, 중국속기경기대회 경기 참관을 비롯하여 중국속기교육세미나가 있고 한국 측 대표로 손석련 한국스마트속기협회 교육이사 주제발표도 있었던 터라 한국대표단이란 막중한 사명을 안고 출국장에 들어섰다. 우리 일행은 미리 준비한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 한국대표단’이란 현수막 아래 출정식을 가졌다.



이제 12시,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했다. 기내의 편의시설과 좌석은 예전과 같다. 비좁고 등받이를 뒤로 젖힐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었다. 예정 시간에 맞춰 1시간여 흘렀을까, 홍차오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홍차오국제공항에서 12km 거리에 위치한 Shanghai Hotel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올랐다.

가는 내내 우뚝 선 빌딩들이 속속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새로운 풍경과 사진 속에 담을 만한 새로운 모습들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며 재빨리 지나간다. 그 장면들을 놓칠 새라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린다. 어느 나라를 가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던 것은 길거리 곳곳마다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눈에 많이 띈다는 점이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 Shanghai Hotel에 도착했다. 속속들이 짐을 꺼내고 룸메이트를 정한 후 호실이 정해진 각자 방에 짐을 풀고 다음 행선지로 향하기 위해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다.

출발할 때부터 드는 생각이었지만 현지에서도 짐을 푸는 동안 때때로 ‘거짓 동경’에 잘못 이끌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예를 들어 카테일파티나 리셉션에 참석하는 것이 부러워서 내 자신이 홍보부에서 근무하고 싶어 한다거나 또한 단지 사람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좋아 보여 관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경우가 그렇다. (거짓 동경인지 진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만나서 화려하고 남 보기 좋은 면을 제외한 그들의 실제적인 일상을 알아보는 것. ^^)

이런 거짓 동경을 제외한다면 이번 중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하는 것을 강점으로 우리나라의 속기계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공유하고 개척해 나가는 것도 큰 발전과 도약으로 나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다.

〈2014년 10월 22일(수) 2일차〉

오늘은 오전 9시 Board meeting, 점심 이후 일정은 Jury meeting, IPRS meeting1, Council meeting1,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회의 참관 및 휴식으로 잡혀 있다. 물론 사전에 1팀과 2팀으로 나뉜 상태라 1팀은 현재 인터스테노 교육위원회 손석련 위원, 과학위원회 김한우 위원, IPRS 의회 대표 이동준(국회사무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인터스테노 중앙위원들과 세계 속기계 현안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또한 한중속기우호교류 한국대표단으로 구성된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 이주성 회장, 정상덕 사무총장, 안정근·김점동·김한우 고문, 이대선 기술위원, 이수만(대구)·이철호(인천)·최숙자(수원)·김정애(창원)·하대경(성남) 지역회장님, 김형진



회원도 참석해서 세계 속기계 중앙위원들의 열띤 회의 상황을 스케치하고 속기 발전방안에 대해 모두 함께 공감하는 시간도 가졌다.

첫날 회의가 끝나고 개막식에 이어 중앙위원회 위원 전원과 속기계 성원들의 기념촬영이 있

었으며 우리 한국 측도 이에 참여하여 소중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어 상해호텔 별관 9층에 마련된 환영만찬에 한국대표단 전원이 참석하여 중국 측이 주최한 만찬을 즐기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한국대표단은 세계 각국 속기인들과 좋은 교류의 시간을 가졌던 매우 의미 있는 자리였고 뜻 깊은 소중한 만남이었다.

또한 저녁에는 한국대표단에게 기념할 만한 경사가 발생했다. 안정근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 고문, 김정애 창원지역회장, 이철호 인천지역회장의 연합 생일파티가 상해호텔 근처 바에서 케이크와 함께 조촐하게 파티 분위기로 아주 즐겁게 진행되었다. 외지에서 가지게 된 세 분의 축하파티는 바쁜 공식 일정 중에 우리 대표단에게는 기분 좋은 추억과 웃음으로 와 닿는 시간이 되었고 그날의 피로를 풀어 주는 아주 즐거운 추억을 남긴 시간이 되었다.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면, 오늘의 공식 일정도 분명 내 자신에게 주요 테마를 발견할 수 있게 해 준 좋은 자리였다.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일과 삶에 적용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부분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또한 직업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확신을 심어 준 좋은 계기로 작용된 듯해서 타국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 좋고 의미 있는 알찬 하루였다.

〈2014년 10월 23일(목) 3일차〉

오전부터 이어지는 Council meeting2, IPRS meeting2와 중국속기경기대회 및 2015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속기경기대회 대표 선발대회 개막식이 있는 바쁜 일정이 있는 날이다. 우리 몇몇 대표단 일행은 오전 이른 시간에 진행되는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날에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든 한국식 김밥을 사다가 이동 중인 차 안에서 아침을 간단히 해결했다.





출근 시간대에 걸린 도로에서 바빠 움직이는 오전이었다. 다행히 전날 저녁 무렵에 김병수 교류간사께서 안내해 주신 식당에서 다음 날 행사 일정 토의를 위해 조촐하게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고 이어서 김밥을 미리 사 두었던 터라 다행이었다. 다음 날 버스 안에서 아침 끼니가 해결이 되었던 것이다.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중국속기경기대회 개막식은 그야말로 화려했다. 500~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서 개막식이 진행된 것이다. 그 자리에는 한국스마트속기협회·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대한속기협회 명의로 화환이 직접 전달되기도 했다. 또한 개막식에는 외국 대표로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손석련 대표,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 이주성 총회장, 대한속기협회 김점동 자격검정위원이 외국 귀빈으로 초대되어 뜻깊은 중국속기경기대회의 개막을 빛나게 해주었다. 개막식에는 전국에서 모인 직업대학 속기 선발전 선수들과 속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어 한국대표단은 왕점군 야웨이 속기교육센터 주임의 안내로 상해공상외국어대학 대표 인물인 푸비아오(傅彪 : 중국을 대표하는 번역가 - 중국공상대학 출신) 기념관을 참관하고 방명록에 서명하였다.

또한 중국속기경기대회 '보고치기 경기'가 열리는 시험장을 3~4명씩 2~3팀으로 나누어서 직접 방문하여 중국 속기인들의 열띤 경연이 펼쳐지는 광경을 직접 보고 체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서속기경기대회 비서 부문 경연대회도 참관하여 중국 속기의 현황을 직접 목격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여러 부문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양하게 선발하는 경기대회는 우리에게 신선한 느낌을 가져다주었고 정통성을 지닌 그들의 맛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시간이었다.

점심 이후 한국대표단은 오후 2시 이후부터 진행되는 중국속기교육세미나에도 참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스마트속기협회 손석련 대표의 '한국스마트속기의 현황'에 대한 발표에 귀추가 주목되었으며, 중국 속기인들의 관심이 한국 속기에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 측 속기 인사들 또한 한국의 속기 현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한중 속기계의 교류·협력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교육세미나에서는 중국 속기 교육자들과 관계자들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교육 방안에 대한 열정적인 주제발표를 통해 그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도 표출하였다. 우리 한국대표단은 중국 속기계 관계자들의 열띤 발표 내용을 통역을 통해 메모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어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 지역회장님들은 중국 각지의 속기계 관계자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 속기와 중국 속기의 교류·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2014년 10월 24일(금) 4일차〉

중국속기경기대회 폐막식에 한국 측이 참석하여 속기경기대회 수상자들에게 시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한국대표단 전원이 시상식에 참석하여 시상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으며, 각 지역 수상자들과 기념촬영도 하고 한중 속기 교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도 되었다. 이날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 이주성 총회장이 인터스테노 보드멤버들과 귀빈석에 앉아 한국을 대표하는 뜻깊은 자리도 되었다.

또한 시상식이 끝난 후 한국대표단 전원은 인터스테노 중앙위원회 폐막식과 환송만찬에 참석하여 외국 속기계 인사들과 아쉬운 작별의 시간도 가졌다. 이날 저녁 중





국 측에서 탕아웨이 교수 탄생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에 필요한 한국 측 주요 인사의 인터뷰 요청이 있어 스마트속기협회 손석련 대표와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 이주성 총회장이 중국 측과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내년도 ‘탕아웨이 교수 탄생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 한다.

이번 한중속기교류 대표단은 학원장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활동으로 앞으로 한중 속기 교류 방면에 새로운 기회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중국 지역 속기학교와 한중 속기 발전에 대한 진지한 생각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한 상해 방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10월 25일(토) 5일차 마지막 여정〉

오늘은 오전 일찍부터 중국 상해의 마지막 시내 일정으로 마무리를 짓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이다. 이번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 한국대표단과 함께 4박 5일간을 뜻깊게 보내면서 인터스테노와 중국 속기계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 현재의 내 나이에

만 누릴 수 있었던 또 다른 특권이자 낭만이라는 생각을 가져 보기도 했다.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고, 특히 한중 양국 속기계의 발전에도 서로 가까이 도움을 주려는 눈길도 보였다.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는 이제부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자 한국 속기계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시작점이라 생

각한다. 일설에 따르면 인간은 새로운 정보의 60%를 한 시간 내에 잊어버린다고 한다. 일상적인 생활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억보다는 즉석에서 메모하듯이, 역사의 한편에 서



서 묵묵히 역사의 기록을 담당하는 우리나라 속기사들이 단연 최고인 듯싶다.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 중에 이런 글귀가 생각난다, “계속 전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일정까지 무사히 소화하고 돌아온 한중속기우호교류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대표단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 글을 위해 도움을 주신 김병수 교류간사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속기계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파이팅!!

※ 하대경 회원님은 한국속기학원(성남) 학원장으로 현장에서 속기사 양성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바쁘신 가운데 인터스테노 중국 기행문을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보부-



한글속기 직무분석 및 자격체계 개선방안

이 경 식

제 I 장 직무분석

제1절 직무정의

속기사의 직무는 속기기계를 사용하여 사람이 발언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기록하고, 이를 일반문자로 변환하여 그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이다.

제2절 직무모형

[그림 I-1]에서는 속기사 직무에 대한 전체적인 직무의 모형을 구성하였다. 직무모형은 그 직업이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는지 진행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속기사의 직무모형을 살펴보면 문자화하기, 문서화하기, 문서생산·보존하기, 사전준비하기 4개의 책무군으로 분석되었으며, 4개의 책무에 대한 관련 작업을 세분화하여 2~4개 작업으로 제시하였다. 이 직무모형의 작업요소를 기준으로 직무명세서, 작업명세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림 I-1] 속기사 직무모형

책 무	작 업			
A 문자화하기(속기)	A-1 장비 점검·설치하기	A-2 회의 자료 확보하기	A-3 속기하기	
B 문서화하기	B-1 수정하기	B-2 수문하기	B-3 편집하기	B-4 교정하기
C 문서생산·보존하기	C-1 등록 및 인쇄하기	C-2 정정 및 최종수정하기	C-3 최종등록·발간 및 배부하기	C-4 보존 및 관리하기
D 사전준비	D-1 약자개발·입력하기	D-2 자료 검색하기		

제3절 직업명세서¹⁾

직업명세서에는 <표 I-1>과 같이 직업분류, 직무수행조건, 인력양성실태 및 취업경로, 작업환경조건 등이 제시되어 있다.

<표 I-1> 속기사 직업명세서

가. 직업분류					
직업명	속기사	K.S.C.O (No)	29112		
현장 직업명	컴퓨터 속기사	교육훈련수준	제 2 직능		
교육훈련직종명	컴퓨터 속기사	자격 종목명	한글속기 1. 2 .3급		
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조건					
성 별	남,여(주)	적정연령	18세 이상	최소 교육정도	고졸
적정교육 훈련기관	사설학원	교육훈련 기간	6개월~2년	소요 자격증	한글속기사 (대한상공회의소)
견습기간 (OJT)	3개월	신체제약조건	청각장애		
직업활동 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법원, 지방의회, 관공서 등 공공기관 • 자막방송업체 • 속기사 사무소 개원 및 개인적으로 활동 가능 				
승진 및 전직	[승진] 수정속기사 → 입력속기사 → 팀장(업무분량은 같지만 관리기능이 요구) [전직] 속기사 사무소, 사설학원 운영, 속기학원 강사				
직업적성	속기키보드와 속기프로그램 사용법을 이해하고 능숙한 적용이 필요하며, 국어, 영어, 경제, 법률, 정치 등 다방면에 걸친 풍부한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학습능력이 요구된다. 맞춤법을 이해하고 관련용어의 의미와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능력과 지속적이고 세심한 주의력을 지닌 사람에게 적합하다.				

1) 장애인촉진공단의 「컴퓨터 속기」 직무분석 내용을 수정하여 제시하였음



소요특질	정신적	주어진 시간 내에 높은 정확도를 요구하는 직무로 집중력이 높고, 정신적 긴장감이 크기 때문에 1~2년 정도의 경력에 이르기 전까지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필요하며, 팀 작업에 관한 상호간의 협조성과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민첩성이 요구된다. 초보인 경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소 있으나 직업적성이 맞는 경우나 일정기간의 경력 이후에는 새로운 동기유발로 반전된다.
	신체적	연설, 토론 좌담 및 각종 회의 내용을 듣고 인지할 수 있는 청력과 손과 손가락의 세밀한 협응력, 민첩성과 시각자극으로 인지하고 지각하는 시지각과 시각 집중력이 요구된다.

다. 인력 양성 실태 및 취업 경로

양성기관	교육	없음
	훈련	사설 속기학원
취업 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기학원 → 국가자격취득 → 공무원시험 + 실기시험 → 국회 등 공무원 ▶ 속기학원 → 국가자격취득 → 속기사무소 등 	

라. 작업 환경 조건

작업 자세	앉아서 하는 작업
작업 조건	속기기계를 이용하여 작업하며, 근무 공간의 넓이는 일하는 장소에 따라 달라짐.
안전 및 위생	넓지 않으나 쾌적한 일반사무 작업공간과 동일함.

마. 관련 직업과의 관계

직업 행렬	컴퓨터속기사는 한국표준직업분류(K.S.C.O)상 제2직능에 속하는 기타 준전문가 집단 안에 29112-속기사로 제시되어 있으며 속기사, 컴퓨터속기사의 명칭을 갖는다. 인접직업으로는 제3직능의 사무종사자로 볼 수 있음.
설명	속기로 회의록을 작성하는 자로 회의, 강연, 법정 및 기타 의사진행에 참석하여 속기로 축어적 의사록을 작성하는 직업을 말하며, 컴퓨터 속기는 1998년에 도입되었음.

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

항 목	세 부 내 용
의사소통 능력	쓰기, 듣기의 정확한 능력과 읽기, 말하기의 기본적인 능력이 요구됨.
외국어 능력	기본적인 외국어 읽기 능력이 요구됨.

항 목	세 부 내 용
수리적 능력	속기사사무소 운영 시 추가되는 사무관리, 회계를 위한 수 개념 능력 필요.
문제해결 능력	창조적, 논리적 사고 능력과 문제인식, 대안 선택 및 적용, 평가 능력이 요구됨.
정보 능력	정보의 수집, 이해 및 컴퓨터 활용 능력이 필요함.
대인관계 능력	팀 구성에 의한 직업으로 팀 내에서 자기 역할을 확인할 수 있고 각자의 역할을 통해 팀의 업무가 완성되므로 매사에 책임감과 협동심이 요구되며, 집단 특성 확인 능력과 갈등 관리 능력이 필요함.
기술 능력	기본적인 과학기술에 관한 이해 능력이 요구됨.

제4절 직무명세서

직무명세서에는 <표 I -2>와 같이 직무개요, 핵심작업과 소요장비 일람표를 제시하였다. 핵심작업에는 작업에 대한 교육훈련 필요도와 교육훈련 적용 방법을 제시하였다.

<표 I -2> 속기사 직무명세서

가. 직무개요			
속기기계를 이용하여 사람이 발인하는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이를 일반 문서화하는 직무			
나. 장비 및 공구			
No	품 명	소요장비	
		주 장비	보조 장비
1)	속기기계(키보드 포함)	●	
2)	컴퓨터	●	
3)	속기프로그램	●	
4)	저장장치	●	
5)	시리얼케이블	●	
6)	어댑터	●	
7)	녹음기		●



No	품 명	소요장비	
		주 장비	보조 장비
8)	사전		●
9)	유무선통신기기		●
10)	참고문서		●
11)	회의록작성편람		●
12)	문서 생성 · 등록프로그램		●
13)	DB 프로그램		●
14)	약자입력프로그램		●

다. 핵심작업(Key Task)

책 무	No.	작 업 명	코스훈련필요도			교육훈련적용방법		
			1순위	2순위	3순위	이론	실습	현장
A	1	장비 점검 · 설치하기	○			○	○	
	2	회의자료 확보하기			○			○
	3	속기하기	○				○	○
B		수정하기		○			○	○
		수문하기		○			○	○
		편집하기			○			○
		교정하기			○			○
C	1	등록 및 인쇄하기			○			○
	2	정정 및 최종수정하기			○			○
	3	최종 등록 · 발간 및 배부하기			○			○
	4	보존 및 관리하기			○			○
D	1	약자개발 · 입력하기			○			○
	2	자료검색하기			○			○

제5절 작업명세서

작업명세서는 속기사 각각의 작업명에 대한 성취수준, 작업요소, 도구, 관련 지식 및 기능을 분석한 것으로 다음과 같이 A-1 작업에서부터 D-2 작업까지 분석하였다.

〈표 I-3〉 속기사 작업명세서

1. 작업명	A-1. 장비 점검 · 설치하기	
2. 성취수준	속기시스템(휴대용, 컴퓨터 연결용)을 점검하고 설치하여 속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작업요소	(1) 장비 구성 및 내·외 전원 상태를 확인한다. (2) 속기시스템을 설치한다. (3) 속기시스템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다.	
4. 관련지식 및 기능(Related Knowledge & Skill)	지식(Knowledge)	기능(Skill)
	- 속기시스템에 대한 이해	- 속기시스템 설치하기 - 속기시스템 작동하기
5. 소요재료		
6. 소요장비 및 공구(사무용기계)	속기기계, 컴퓨터, 저장장치, 속기프로그램, 시리얼케이블, 어댑터, 녹음기	

제6절 지식과 기능 분류

속기사 직무분석 결과 속기사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은 〈표 I-4〉에서와 같이 속기, 문서작성, 문서관리, 용어와 관련한 일반 상식 및 전문지식 등이다. 속기와 문서작성은 속기사가 활용하는 속기프로그램과 활동영역, 즉 국회, 지방의회, 법원, 자막방송 등의 속기사가 활동하는 모든 곳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이며, 문서관리와 상식 및 전문지식은



속기사가 활동하는 기관 및 속기 분야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이는 속기사가 현장에서 주로 습득해야 할 내용이다.

이와 같은 지식과 기능의 분류를 통해 자격에서 검정이 필요한 것은 공통 지식과 기능에 해당하는 속기와 문서작성 분야이다. 이들 분야는 <표 I-5>와 같이 장비 점검·설치하기, 속기하기, 수정·수문하기 작업과 매핑되며, 이는 기존 한글속기 자격의 시험과목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속기의 수단²⁾이 바뀌더라도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빠른 시간에 기록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속기의 목적과 속기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속기를 하기 위한 속기기기 및 속기프로그램 등을 다루는 기능의 변화만 있을 뿐이다.

<표 I-4> 속기사의 지식과 기능 분류

구 분	내 용	분 야	비 고
지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기록 작성법 - 약자 선별 및 개발 요령 - 약자 입력 및 수정 방법 - 약자에 대한 지식 - 속기시스템 이해 	속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문법 - 문맥의 이해 - 한글맞춤법 - 띄어쓰기 - 문장부호 	문서작성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및 파일분류에 대한 이해 - 문서DB화에 대한 이해 - 발간시스템에 대한 이해 - 배부규정에 대한 이해 - 통합문서 등록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 통합문서 생산 및 등록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문서관리	기관별 다양

2) 수필속기, 타자속기, 컴퓨터속기

구 분	내 용	분 야	비 고
지 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문서의 구조 및 체제에 대한 이해 - 통합문서의 체제에 대한 이해 - 회의록 서식에 대해 이해 - 회의록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해 - 속기내용 정정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 - 속기내용 정정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상식의 이해 - 다양한 분야의 지식(용어) - 전문용어에 대한 지식 - 회의 관련 용어 이해하기 - 회의 관련 자료에 대한 이해 - 회의 내용에 관한 이해 - 회의 쟁점 이해하기 - 회의 진행법 - 회의 참고자료에 대한 이해 - 회의내용과 관련된 전문용어 - 회의내용에 관한 이해 	상식 및 전문지식	분야별 다양
기 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기하기 - 속기시스템 설치하기 - 속기시스템 작동하기 - 약자 입력하기 - 용어 약자화하기 	속기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중하기 - 청취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문서 편집하기 - 디자인(문서 틀 구성)하기 	문서작성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음기 보조 활용하기 	보조 장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파악하기 - 자료 검색하기 - 자료 수집하기 	상식 및 전문지식	분야별 다양



〈표 I-5〉 한글속기 자격의 시험가능 과목

핵심작업 \ 시험과목	속기	번문
A-1 장비 점검·설치하기	○	
A-2 회의자료 확보하기		
A-3 속기하기	○	
B-1 수정하기		○
B-2 수문하기		○
B-3 편집하기		
B-4 교정하기		
C-1 등록 및 인쇄하기		
C-2 정정 및 최종수정하기		
C-3 최종 등록·발간 및 배부하기		
C-4 보존 및 관리하기		
D-1 약자개발·입력하기		
D-2 자료검색하기		

제7절 시사점

직무분석 결과, 속기사의 직무는 속기사로서의 능력개발을 하는 「준비단계」, 현장에서의 「속기단계」, 속기한 원문을 일반 문자화하는 「번문단계」 그리고 번문된 원고를 기관 특성에 맞게 문서화 하는 「문서화단계」와 「문서생성 및 보존하는 단계」³⁾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속기는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이론 지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작업이라기보다는 속기하고자 하는 분야의 다양한 지식을 바탕으로 실시간에 정확한 기록을 요하는 것으로 고도의 집중력과 청취력이 요구된다. 또한 속기내용의 문서화를 위해서는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지식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한글속기 자격의 검정내용으로 속기 속도, 정확도와 함께 국문법 및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평가되어야 한다.

3) 속기사가 소속되지 않은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속기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속기 속도, 정확도, 맞춤법 등은 기존의 검정 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지식, 띄어쓰기, 문장력 등은 검정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II 장 자격체계 개선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속기실무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발음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정치 않은 속도에 따라 오랜 시간 기록해야 한다. 또 내용이 매우 다양하고 전문적이어서 방대한 사전지식 없이는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번문과정에 외국어, 한자표기,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 수정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서식에 맞게 원고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능력들이 요구된다(이승철, 1993).

한글속기 자격은 변화되는 속기환경에 따라 2012년부터 속기와 번문을 구분하여 검정을 시행하던 것을 실시간 검정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맞춤법 이외에 띄어쓰기, 문맥 등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문장이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속기프로그램 업체 간의 기존 검정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글속기 자격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은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동시에 속기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기보다 속기의 본래 목적인 사람의 말을 빠르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고, 검정의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다.



제2절 개선방안

1. 자격명칭

한글속기 자격명칭은 속기사(국어) 또는 속기(국어)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속기사는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자를 속기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놓고 볼 때 민간자격을 가지거나 혹은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사무소를 내거나 속기사로 활동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전에 대한속기협회에서 자격시험을 시행할 때도 ‘속기’라고 자격증을 발급한 바 있어 큰 무리는 없다고 본다. 또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 등 기존 한글속기자격자에 대한 혼란이 예상될 수 있으나 이는 개정된 자격 명칭에 포함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면 될 것이다.

2. 자격등급

자격의 등급은 자격 취득자의 수준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직무 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적으로 성인남자의 경우 1시간의 발음량은 1만 2천자에서 2만 1천자 내외이며, 이를 2백자 원고지로 환산하면 60매에서 105매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속기술을 습득하려면 적어도 5자/초 이상에 해당되는 글자를 써야 한다(대한속기협회, 1998). 이를 기준으로 하면 기존 3등급 체계는 <표 II-1>과 같이 현장(의회, 회의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속기사의 수준을 고려하여 설정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사람들의 발음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자막방송에서는 일반 속기보다 빠른 속도가 요구되는 것을 고려하면 상위 등급의 신설 또는 등급별 속도의 증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등의 개선을 통해서도 보완이 가능하므로 자격의 등급은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1급 연설체의 경우 변별력의 강화와 속기기계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분당 320자에서 분당 330자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II-1〉 등급별 속도 및 수준

등급	속도	수준
1급	330자/분, 5.3자/초	혼자서 원활하게 속기 수행
2급	300자/분, 5자/초	혼자서 속기 수행
3급	270자/분, 4.5자/초	속기 보조(입직 수준)

3.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

현대인의 발연 속도가 증가하고 있고, 방송자막을 위한 속기는 일반속기보다 빠른 속도와 정확도가 요구된다. 또한 컴퓨터 속기의 도입으로 연설체⁴⁾와 논설체⁵⁾의 구분 필요성이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논설체에 의한 검정의 변별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졌고⁶⁾, 의회 및 법원 등에서는 주로 대화체의 속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험과목에 있어서 분당 출제 분량 증가와 함께 논설체를 대화체로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속기의 속도 증가는 분당 출제 분량뿐만 아니라 검정방법, 합격기준 등과 연계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논설체의 대안으로 대화체를 도입하여 시행할 경우 채점 및 출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논설체를 폐지하고 연설체만 시행할 경우 검정의 단순화로 검정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고, 시행 기관의 편의성 고려라는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검정의 신뢰성 유지와 속기의 특성상 여전히 일정 부분 연설체와 논설체를 구분할 필요성에 의해 자격의 등급과 시험과목은 〈표 II-2〉와 같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속기 속도의 증가는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과 연계하여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습니다”로 문장이 끝나며 약자가 많이 포함된 문장으로 속도 능력에 치중하고 있음.

5) “~다”로 문장이 끝나며, 주로 약자가 적게 포함된 문장(약자와 할 수 없는 용어: 사자성어, 전문용어, 함축적인 단어 등)으로 상대적으로 내용이 어려워 문장에 대한 이해력 측정을 포함하고 있음.

6) 수필속기에서는 논설체에서 합격 여부가 상당수 결정되었음.



〈표 II-2〉 한글속기자격의 등급 및 시험과목

자격종목 및 등급	시험과목 및 출제기준	
	연설체	논설체
한글속기 1급	1,600자	1,450자
한글속기 2급	1,500자	1,350자
한글속기 3급	1,350자	1,200자

4.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현행 검정방법은 연설체, 논설체 각각 5분 낭독에 수정 없이 실시간검정을 기준으로 채점을 하고 있다. 실시간 제출로 이루어지므로 속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문서 작성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장 이해력, 띄어쓰기, 문장부호 등에 대한 표준이 명확하지 않아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한글워드와 같이 문서를 보고 기록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띄어쓰기, 문장 이해력 등에 대한 표준을 제시하여 채점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검정방법에 대하여 속기프로그램 업체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어 검정의 객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속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에 초점을 두어 검정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검정방법은 연설체, 논설체에 대하여 각각 5분의 낭독시간 동안 기존의 출제분량을 기준으로 실시간으로 속기한 결과를 채점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다만, 변별력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속도의 증가나 급수 간 합격기준의 변경이 바람직하며, 합격기준은 현대인의 발언 속도 증가 및 검정방법 변경에 따른 합격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결정해야 한다.

〈표 II-3〉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개선안

현 행					
자격종목 및 등급	출제분량		낭독시간	수정시간	합격기준
	연설체	논설체			
한글속기 1급	1,600자	1,450자	5분	실시간 검정	각 90% 이상 정확도
한글속기 2급	1,500자	1,350자	5분		
한글속기 3급	1,350자	1,200자	5분		
⇩					
개 선					
자격종목 및 등급	출제분량		낭독시간	수정시간	합격기준
	연설체	논설체			
한글속기 1급	1,650자	1,450자	5분	실시간 검정	각 90% 이상 정확도
한글속기 2급	1,500자	1,350자	5분		
한글속기 3급	1,350자	1,200자	5분		

주) 합격기준의 변경을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의 개정이 요구됨.

합격기준은 현재 실시간검정으로 실시되는 관계로 교육기관의 시험운영결과를 고려하여 재설정해야 한다. 또한 개선된 검정방법의 시행은 유예기간을 두어 한글속기자격 응시자들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Ⅲ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결 론

이 연구는 속기사의 산업현장 직무분석을 통해 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 검정방법 등 검정체계 개편을 위해 수행된 것이다. 한글속기 자격이 국가기술자격으로서 사회적 공신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격의 현장성은 물론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



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국어속기 자격 검정이 사용하는 속기기기 또는 프로그램의 성능에 따라 개인의 능력 정도가 다르게 평가된다면, 이는 개인의 능력평가라기보다 기기의 성능평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속기프로그램의 특성에 좌우되지 않으면서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한글 속기 자격체계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글속기 명칭은 속기사(국어) 또는 속기(국어)로 개정하고, 등급, 시험과목 및 출제분량은 1급 연설체만을 증가하여 변경하고 나머지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검정방법에 있어서는 현행과 같이 수정시간 없이 실시간 속기한 결과를 대상으로 채점한다. 즉, 한글속기 검정방법의 개선안은 변별력의 강화와 실시간 검정을 함으로써 속기사에게 요구되는 청취력과 속기속도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이는 현재 속기프로그램이 속도의 증가에 큰 무리를 주지 않으며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동 띄어쓰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므로 1급의 경우만 변별력을 높여야 한다는 실시간검정 이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채점기준은 현재와 같이 할 수 있으나, 인터스테노(국제속기타자연맹)와 같은 국제 표준 채점기준에 따라 주요단어를 지정하여 가중치를 두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합격기준은 검정방법의 변경 전후 합격률 등을 비교·분석한 후 논의한다.

〈표 Ⅲ-1〉 한글속기 검정체계 개선안

구 분	현 행	변경(안)
명칭	속기사(한글) 또는 속기(한글)	속기사(국어) 또는 속기(국어)
등급	1급, 2급, 3급	현행 유지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연설체(5분 : 실시간 검정) 논설체(5분 : 실시간 검정)	현행 유지 단, 1급 연설체 330자 상향
합격기준	연설체 : 90% 논설체 : 90%	연설체 : 90% 논설체 : 90%

제2절 제 언

한글속기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한글속기 자격의 검정방법을 변경할 경우 유예기간을 두고, 이에 따른 합격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1급 연설체의 경우 분당 330자로 늘릴 경우, 기계적 특성이나 교육과정으로 볼 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나 교육기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단기간의 시험기간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한글속기 자격의 시험과목에 대화체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국회, 지방의회 이외 속기사의 새로운 진출 분야인 법원, 검찰, 경찰, 자막방송, 교육속기 등에서 이루어지는 속기의 대상은 주로 대화체로 한글속기 자격의 현장성 확보를 위해서는 시험과목에 대화체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 대화체의 출제 및 채점방법 개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한글속기 자격에 속기사로서 갖추어야 할 문장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의 실시간검정에 대한 채점기준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즉, 수정시간 없이 채점한 결과와 수정시간을 가한 결과에 대한 채점결과를 고려하는 검정능력이 필요하고 단순 오타자 이외에 문장의 의미, 띄어쓰기 등 문장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한국속기 50년사』, (사)대한속기협회, 1998

이승철(1993). 「속기실무과정중 -준비단계에 대하여」, 『속기계』, 제30호, (사)대한속기협회.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http://www.kcost.org>

(사)한국스마트속기협회 <http://www.casi.co.kr>

『속기계』, 제1호~제40호

『속기개관』, 국회사무처, 1969



반갑습니다! 중의원 기록부 직원 인터뷰

일시 : 2014년 10월 20일

참여 : 시마다 아케미(島田暁実) 중의원 기록부 제3과 주임속기사

오카다 히데유키(岡田英幸) 중의원 헌법심사회사무국 총무과 조사4계장

장미경 국회사무관, 홍보부

통역 : 최영림 주무관

「ep1, 인터뷰에 들어가면서...」

홍보부 :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마다 : 저도 반가워요.

홍보부 : 이젠 저희 속기협회에서 발간하는 ‘속기계’라는 책이에요. 협회에서 1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보고 서나 우리 속기사들의 글, 학술 내용 등 여러 가지를 실어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의 인터뷰도 이 책에 실을 예정이에요. 내년엔 발간하면 시마다 씨께 보내 드릴게요.

시마다 : 기쁘고 영광이에요. 감사합니다.

홍보부 : 속기사를 꿈꾸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시마다 : 중학생 때 TV에서 속기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가 원래부터 연필이나 샤프로 글씨 쓰는 걸 좋아했어요. 그런데 속기가 연필, 샤프로 뭔가를 쓰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재미있어 보여서 흥미를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니까 속



기사는 폭넓은 지식을 가지는 것이 일하는 데 유리하잖아요. 저도 무언가를 알아 가는 것을 좋아해서 여러 지식을 몸에 익혀야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 보였어요. 일석이조랄까, 많이 쓰고 익힐 수 있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일 같아서 중학생 때부터 속기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ep2, 양성소, 자격증 그리고 중의원」

홍보부 : 속기를 처음 배운 게 언제였어요?

시마다 : 고등학교 졸업하고 19살 때 속기사 양성소에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2년 반 공부했어요.

홍보부 : 2년 반 걸려서 자격증을 땀나요?

시마다 : 예, 그랬어요. 일본은 일본속기협회에서 매년 4회 속기검정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 속기검정 1급이 중의원 속기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서 양성소에 있을 때 1급 자격증을 땀어요. 급수는 6급부터 있는데 양성소 학생은 3급부터 응시할 수 있어요. 6급은 굉장히 느린 시험이라서 속기로 하지 않아도 받아 적을 수 있는 속도예요. 3급은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서 학생들한테도 잘 맞는 것 같아요.



홍보부 : 그러면 양성소에 들어갈 때는 시험이 없나요?

시마다 : 양성소 들어갈 때도 시험이 있어요. 국어, 영어 시험이에요. 그리고 적성검사가 있어요. 속기가 적성에 맞는지를 보는 검사도 받아요. 1차 시험이 필기와 적성검사이고 2차 시험이 면접이에요. 그렇게 해서 양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홍보부 : 양성소를 졸업한 후 바로 종의원에 들어가나요?

시마다 : 예, 맞아요. 바로 들어가요. 졸업할 때 종의원 채용시험이 있어요. 그것도 속기 테스트 인데 속기 테스트를 해서 실수가 적은 사람이 합격하게 돼요.

홍보부 : 자격증 시험하고 같은 건가요? 속도라든가……

시마다 : 같은 내용이에요. 1급과 똑같은 속도로 테스트해요. 세 차례 테스트를 하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빠르게 쓰는 테스트예요.

홍보부 : 필기시험은 없었나요?

시마다 :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종의원에 들어가기 전에 시험이 있어요. 아까 2년 반 동안 공부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선 2년이 끝날 때 시험이 한 번 있어요. 처음 2년 동안은 양성소 본과에서 기초를 공부하고 본과를 졸업할 때 그 위의 연수과로 가기 위한 시험을 봐요. 연수과는 종의원에 들어가는 사람을 위한 시험이라서 본과 때 시험에서 떨어지는 사람은 연수과에도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종의원에도 들어가지 못하지요. 그렇게 종의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민간 회사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두 번 치르는 게 되지요.

「ep3, 종의원 기록부 조직과 규정」

홍보부 : 종의원 기록부에서 남성과 여성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시마다 : 여성과 남성이 8 대 2 정도로 여성이 많아요.

홍보부 : 저희는 회의장에 출입할 때 입는 제복에 관한 국회사무처 규칙이 있는데 일본에도 이런 제복이 있나요?

시마다 : 없어요.

홍보부 : 그러면 특별하게 정해진 규정은 없나요?

시마다 : 특별하게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정장 식의 재킷을 입으면 돼요.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좀 화려한 색, 새하얀 색이라든가 빨강도 안 돼요. 화려한 색은 너무 눈에 띄니까요. 그리고 귀금속은, 목걸이는 그렇지 않은데 매니큐어가 화려하거나 머리카락 색이 밝은 갈색이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있어요.

「ep4, 속기 실무 방식」

홍보부 : 지금은 일반 사무직원이 연수를 받고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저희는 신입사원이 처음부터 혼자서 회의장에 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명이 한 짬으로 일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시마다 : 지금은 양성소가 폐지돼서 속기사를 채용하지 않는데요. 사무국으로 들어온 속기를 전혀 배우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 현재의 시스템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연수 기간은 2년이고요. 처음 6개월간은 기초연수 기간이라고 해서 용자레나 원고 작성 방법, 기계 사용 방법, 문자로 옮길 때의 처리 방법(번문)이라든가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노하우를 훈련해요. 그게 끝나면 다음 6개월간은 전기실무연수 기간이라고 해서 개회 중에는 1일 2회 실무연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 명이 한 짬으로, 베테랑 원고작성자와 2인 1조로 실제 위원회를 담당하여 원고를 작성해요.

홍보부 : 그건 연수 후에 회의장에 가서 실제로 일을 한다는 건가요?

시마다 : 지금은 음성인식시스템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속기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음성인식기가 문자로 만든 데이터를 수정하는 작업과 그 이후 원고를 인쇄해서 한 짬인 선배와 함께 원고를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홍보부 : 그러면 언제부터 독짬이 되나요?

시마다 : 6개월의 전기실무연수가 끝난 후 1년간 후기실무연수 기간이 있는데 이때도 온짬이지만 실제로 혼자서 담당하는 것을 상정하고 신입사원에게 맡겨서 원고를 작성하는 식으로



연수를 해요. 실제로 독잠이 되는 건 2년 후예요.

홍보부 : 온잠이면 시간은 어떻게 되지요?

시마다 : 담당 시간은 다른 베테랑과 마찬가지로 5분이에요. 1인당 5분이고 연수생의 경우는 온잠이지만 5분이에요.

「ep5, 회의록 작성 방식에 관하여」

홍보부 : 회의 도중에 허가 없이 발언하는 의원이 있는데 종의원에서는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몰라서 이 사진을 준비했어요. 기억하세요?

시마다 : 예, 알아요. 성희룡 아유를 보냈을 때이지요.

홍보부 : 여기는 도교도 의회인데 회의록이 좀 다를지도 모르지만……

시마다 : 저도 확인은 안 했지만 이 경우를 만약 국회에 적용해 본다면 국회에서는 아유가 나와도 질문자나 답변자가 대답하지 않으면 아유는 쓰지 않도록 돼 있어요.

홍보부 : 대답했을 때 속기사가 듣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시마다 : 대답했는데 속기사가 못 들었을 경우에는 그저 '발언하는 자 있음' 이라고……

홍보부 : 발언은 신지 않아요?

시마다 : 신지 않아요. 장관과 질의자가 질의응답 중에, 예를 들어 질의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장관이 '그건 아닙니다' 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넣어요. 그 질의의 답변자이기 때문



※ '성희룡 아유' 도교도 의원, 피해 의원에 사죄 (도교 교도=연합뉴스) 2014.6.25
스즈키 의원이 23일 '피해자'인 시오무라 아야카(鹽村文夏·36·여) 다함께당 소속 의원에게 사죄하고 있다.

에 발언을 넣지만 야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넣지 않아요. 다만 장관이나 질의자가 답변했을 때는 ‘발언하는 자 있음’이라고만 표기해요. 그래서 장관이나 질의자가 야유를 무시했을 때는 ‘발언하는 자 있음’도 넣지 않아요. 회의록상 야유를 무시하고 있다면 질의응답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회의록을 읽을 때 그 야유가 없어도 의미가 전부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야유를 넣지 않아요.

홍보부 : 야유가 아니라 질의자가 아닌 사람이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 무언가 중요한 질문을 자기 자리에서 발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마다 : 그런 경우에도 넣지 않아요.

홍보부 : 장관이 다른 의원의 질문에 대답해도 넣지 않나요?

시마다 : 장관이 대답한 경우에는 발언 내용은 넣지 않지만 ‘발언하는 자 있음’이라고 넣어요. 일본에서는 발언 시간을 초과하면 위원장이 발언 시간이 끝났으니까 그만하라고 제지해요. 대개 모두가 그에 따르기 때문에…… 정말로 싸울 때는 위원장이 말려도 계속 발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특별히 괄호를 사용해서 시간이 지났다는 표기는 하지 않고 보통의 회의록과 같은 식으로 해요.

「ep6, 회의록 편집 방식」

홍보부 : 다음은 의원 발언 내용 수정에 대해서인데요. 부정확한 발음이나 이 사람은 A라고 말했지만 누가 생각해도 A가 아니라 B인 경우나……

시마다 : 발언 내용이 틀렸을 경우네요?

홍보부 : 예,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옳은데 ‘없습니다’라고 말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시마다 : 그럴 때는 우선 원고작성자, 속기사 단계에서 의원에게 문의하는 일이 있어요. 여기 발언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 확인해 달라는 식으로 문의해요. 그렇게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홍보부 : 금액이나 연도나 숫자가 틀린 경우에도 그렇게 하나요?

시마다 : 그럴 때는 편집 담당자에게 의원실에 문의해야 할지를 물어보고 편집 담당자가 그러자고 할 때 문의하기도 하고요. 또는 기본적으로 말한 대로 원고를 작성하기 때문에 속기사 단계에서는 말한 대로 해 달라는 편집 담당자의 지시가 있어요. 그래서 편집 담당자가 원고 전체를 읽고 역시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 외에도 틀린 부분이 몇 군데 있으니까 그걸 모아서 의원실에 문의하기도 해요.

홍보부 : 발언자가 말할 때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어’, ‘저기’, ‘말이지요’ 이런 것을 속기사가 자신이 판단해서 넣지 않나요?

시마다 : ‘음’, ‘저기’ 등은 지우면 돼요.

홍보부 : ‘예를 들면’ 은요? 정말로 예를 드는 게 아니잖아요.

시마다 : 예, 그렇지요. 입버릇으로 말하는 경우지요. 그럴 때는 속기사가 빼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역시 원칙은 그대로 쓰는 거니까 발언 그대로 원고에 쓰는데 속기사 단계에서 빼도 되는 것과 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필요 없다고 자신이 있는 경우는 빼요, 제 경우지만요. 좀 망설여지나 이게 뒷부분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남겨 뒀요. 하지만 편집 담당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해요. ‘예를 들면’ 은 빼고 싶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은 빼고 싶은데 어떨까요?” 하는 식으로 원고에 써 넣는다든지 해서 의사 표시를 해요.

「ep7, 회의 상황 포기」

홍보부 : 회의 중에 의원이 PPT나 동영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의원에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시마다 : PPT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요.

잠시만요. 오카다 씨, 위원회에서 PPT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오카다 : 기본적으로는 없지요. 자료를 배부하니깐요. 어쩌면 한 번 정도는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시마다 : 제로에 가깝네요. 거의 없고, 의원들이 항상 종이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은 그 자료를 보면서 발언을 듣거나 또는 국회중계에서 생방송되는 경우에 그 자료를 크게 해서 패널을 만들어서 TV 쪽을 향해 '여기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하는 식으로……

홍보부 : 그런 상황을 회의록에 표기하나요?

시마다 : 그건 특별히 표기하지 않아요. 대개 의원이 패널을 보겠다거나 자료 몇 페이지에 이렇게 쓰여 있다거나 자신이 제시하는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패널을 가리킨다든가 하는 내용은 회의록에 넣지 않아요.

홍보부 : 저희는 동영상 같은 경우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표기해요. 중의원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했는데, 정말 부럽네요.

시마다 : 동영상은 사용하지 않아요. 속기사분들이 확인할 것이 많이 있네요. 동영상이 몇 분부터 시작했다거나 야유도 그렇고요. 힘드시겠어요.

「 ep8, 비공개회의록 」

홍보부 : 비공개회의록 보관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마다 : 제가 비공개회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오카다 : 비공개회의록은 1989년부터 계속 국회에 보존되고 있습니다.

홍보부 : 속기사가 비공개회의에 들어가서 회의록을 만들지요. 그러면 그 원고를 어떤 식으로 하지요? 각자 컴퓨터에서 작성한 뒤 취합해서 보존하는……



오카다 : 저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일본에는 비공개회의가 별로 없어서요.

대개 의원 신상에 관한 것인데요. 최근에는 외교 문제로, 이것도 5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번인가 있었던 정도로 거의 예가 없어서 저희도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홍보부 : 국방이나 정보기관에 관련된 위원회의 회의도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도 모든 사람이 전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나요? 일반 국민들이 알게 하고 있나요?

오카다 : 국회에서의 발언은 전부 오픈, 비공개회의도 오픈하니까요. 그리고 국회를 운영하는 국회의원운영위원회는 영상은 공개하지 않지만 기록은 오픈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비밀에 관해서라고 할까, 위원회에서 간담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는 기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부 : 그럴 때는 기록중단인가요?

오카다 : 간담에 들어간다고 씁니다, 기록으로.

홍보부 : 들어가기 전에 중단합니까? 시작하기 전에 이걸 기록하지 말라고 하고 회의록을 만들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회의 도중에 여기부터는 중요한 비밀이니까……

오카다 : 비공개회의의 부분은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부분부터 쓰지 않습니다. 처음에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은 공표되지만 가운데의 ‘비공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부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비공개회의라고 해도 속기는 하고 공표만 하지 않는 거지요.

홍보부 : 그러면 비공개회의에는 일반 사무직원들이 들어가지 않네요. 그럴 때는 속기사만 들어가나요?

오카다 : 위원회 관련 직원과 속기사 이외에는 퇴실하게 됩니다.

「ep9, 기억에 남는 순간」

홍보부 : 지금까지 오랜 시간 일해 오셨을 텐데요. 회의장에서 속기할 때 있었던,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시마다 : 기록부에서는 강행채결(強行採決)이라고 부르는데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위원장이 ‘지금부터 채결하겠습니다’ 하고 진행할 때가 있는데……

홍보부 : 갑자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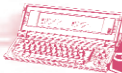
시마다 : 예, 갑자기요. 그럴 때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와요, 인정할 수 없다고요. 속기사는 그런 김새가 있다는 정보를 미리 듣기 때문에 액세서리를 뺀다거나 샤프를 주머니에 넣으면 안 된다거나, 밀리다가 찢리면 위험하니까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지요. 그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데 그럴 때는 긴장하게 돼요. 위원장이 마이크를 빼앗기면 이어폰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입을 보고 속기를 하기도 하고 질문자 쪽에서 누가 무슨 발언을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긴장 돼요.

또 하나는 본회의에서 해산(解散)¹⁾되는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요. 해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데 두 번 연속으로 해산 부분을 쓴 적이 있어서 기록부 내에서 ‘시마다는 해산을 부르는 여자야’ 라는 말을 듣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두 번뿐이었어요. 신입 때 한 번 있었고 2년차 때 한 번 있어서 대단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홍보부 : 감사합니다.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1) 일본의 의회 해산제도로 임기가 만료하지 않은 중의원 의원 전원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것



기획코너! 채강희 님 인터뷰

홍 보 부



올해 51호 속기계에서는 태평로국회 시절 근무하셨던 원로 선배님과의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었는데, 마침 채강희 선배님께서 흔쾌히 인터뷰 요청에 응해 주셨습니다. 채강희 선배님께서 1963년 12월 국회 속기과 입사 후 1996년 5월 서기관으로 퇴직하신 분으로서 원로 선배님을 통해 역사의 현장에서 속기 하셨던 당시의 긴박감과 태평로국회 시절 속기과의 많은 경험과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홍보부(이하 홍) :** 어떤 계기로 속기에 입문하시고 어떻게 속기를 공부하셨나요?

○ **채강희 선배(이하 채) :** 저는 1941년생 경북 문경 출신입니다. 1960년에 중앙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했어요. 수학에 자신이 없어서 사학과를 택했지요.

그렇지만 1학기밖에 못 다녔어요. 집에서 부쳐 주신 2학기 등록금으로 속기학원에 가서 등록을 했어요. 당시 속기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도 있었지만, 학생모집 광고에 ‘언론기관에 취업할 사람’이라는 문구가 들어 있어서 ‘언론기관에 들어가려면 당연히 속기를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거죠.

내가 속기를 배운 곳은 서울 종로 YMCA 옆 장안빌딩에 있는 ‘동방속기학원’인데 거기가 내가 살던 인사동 집에서 제일 가까웠습니다. 한 50m 정도 떨어져 있었지요. 동방학원 부원장이 고 이강현 선생님이셨는데, 수업이 끝나면 그분을 붙들고는 속기 현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집이 가까우니까 학원의 난롯불 꺼지면 우리 집에서 연탄 갖다가 갈아 넣고 그럴 정도였어요. 어쨌든 동방식으로 시작을 했지요.

○ **홍 : 선배님 입사 시기가 1963년 12월인데, 당시 국회속기사 채용시험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 **채 :** 그때는 총무처 고시과, 지금으로 말하면 안전행정부인가요? 장면 정권 시절에는 ‘국무원사무처’ 였는데 5·16 일어나고는 내각사무처로 바뀌었는데 거기서 시험을 주관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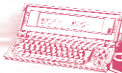
그런데 그때 속기학원에서는 채용시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니까 신문광고가 언제 난다는 것까지도 빠삭하게 알고 있었지요. 당시 속기시험은 연설체 300자, 논설체 280자를 각 5분씩 낭독 후 번문하는 방식이었어요. 시험장은 당시 효자동 쪽에 있던 동덕여대 강당을 빌려서 치렀지요. 그날 시험장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서 뒤에 앉은 사람은 시험을 치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낭독이 시작됐어요. 다행히 나는 앞에 앉아서 운 좋게 합격이 되었지요. 속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시험관으로서 낭독을 했으니까 오죽했겠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열악했지요.

그다음 시간은 논술시험이었습니다. 제목이 ‘양원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당시 5·16 이전에는 민의원도 있고 참의원도 있던 양원제였거든요. 그래서 들은 풍월도 있고 ‘대통령제’ 나 ‘삼권분립’ 등 몇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모범 답안을 항상 생각해 왔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했지요.

1963년 11월에 시험을 치르고 12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발령을 받았습시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근무한 적이 없었어요. 최고회의는 광화문, 이전 문화관광부가 있던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11일 최고회의로 출근해서는 태평로 의사당(지금 서울시의회가 사용)으로 이사하느라 인부들하고 같이 책상이나 물품들을 나르곤 했지요.

○ **홍 : 선배님 입사 당시 47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성속기사는 몇 분이셨나요?**

○ **채 :**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들어온 여성속기사가 8명인 것 같습니다. 고 이윤환 씨, 고 최



명숙 씨, 그리고 이만자 씨, 참의원에 있었던 분이던가? 내 주무님이시기도 하셨지요. 김영희 씨, 유경숙 씨, 김희자 씨, 주양순 씨, 정정자 씨, 그리고 다음 해에 조창순 씨, 최복임 씨, 양화자 씨가 합류했습니다. 그 시절에 여성속기사는 정말 선구자적인 존재였습니다.

○ **홍 : 선배님께서 근무할 당시 국회 속기과의 규모나 업무 분장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채 :** 최고회의에서도 속기사를 모집해 가지고 6명인가 뽑았어요. 그때 이동일 씨, 최석모 씨, 서호정 씨, 최명숙 씨 이런 분들이 거기 속기사로 들어가 있다가 국회로 오셨지요.

또 육군부관학교에서 속기를 가르쳐서 부관학교 출신인 박대혁 씨하고 최광석 씨라고 그 두 사람인가 들어오시고, 신언식 씨는 고려식인데 현역 대위이면서 혁명 주체였지요. 그분이 속기1계장으로 국회에 들어왔어요.

마침내 12월 17일 민정이양이 돼서 태평로로 와서 근무를 시작했어요. 그때 속기과장은 최고회의에서 온 분이었는데 속기사 출신은 아니었어요. 그 밑에 신언식 씨가 1계장인데 이분 혼자만 사무관이고 이동일 씨, 김영선 씨, 최효섭 씨 이 세 분은 주사급으로 직무대리였죠. 그렇게 총 4개 실무계와 2개의 편집계로 속기과가 구성됐어요. 또 한 계의 인원은 10~12명으로 다 2인 1조로 주무·부무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 **홍 : 태평로국회에서 근무하실 때 당시 근무 여건은 어땠나요?**

○ **채 :** 당시 짜장면 한 그릇값이 보통 30~40원 했는데 내가 말단 9급 서기보, 당시 직급인 5급을류로 발령을 받아서 받은 첫 봉급이 3,850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장면 100그릇 정도 먹을 수 있는 봉급이죠. 나는 1960년 9월에 속기 공부를 시작했는데, 5·16 이후 민의원·참의원 속기사들 중에 군 입영대상자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일시에 입영을 하고 나니까 속기 실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당시 신출내기였던 내가 각종 조합 총회 등을 다니면서 속기를 했지요. 그 수입이 꽤 짭짤했는데 막상 국회에 들어 오니까 생각했던 것 외로 월급이 적어서 씹씹이를 줄이느라고 무척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태평로의사당에 직원식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들이 도시락을 만들어 점심시간에 와서 팔았지요. 복도나 바깥 나무 그늘 밑에서 도시락 주문을 받았어

요. 당시에는 모두들 가불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월급 때 돈 떨어진 사람들은 그 아주머니들을 피해 다니기 일쑤였어요. 그때 도시락값이 한 50원 정도였는데 조금조금씩 올라서 70원까지 올랐어요. 그러던 것이 국회가 여의도로 이사 오면서 도시락 장사가 없어졌죠. 그 도시락,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또 당시에는 야간 국회를 많이 하곤 했는데 담당 위원회에서 저녁 먹으라고 식권을 발급했어요. 그러면 그 식권을 가지고 무교동 설령탕집에 가서 설령탕 한 그릇씩 먹고, 또 회의가 새벽까지 가면 여관을 잡아 줘서 여관에서 자곤 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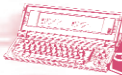
또 야간 통행금지기가 있던 시절이라 그 당시 회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회의가 늦어지면 우리 속기사들에게는 관할 남대문경찰서장 명의로 야간통행증을 발부해 줬어요.

○ **홍 : 당시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 **채 :** 확실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지금 서울시의회 시계탑 건물이 국회 본관이었는데, 3층에 국회운영위원회만 있었어요. 그 맞은편 현재의 서울신문사 옆에 2별관이 있었는데 법사위원회와 보사위원회가 있었고요, 2별관에서 동아일보사 쪽 3별관에는 1층에 건설위원회, 2층에 국방위원회, 3층에 교통체신위원회가 있었고, 같은 3별관이지만 별채 1층에 상공위원회, 2층에 농림위원회, 3층에 재정경제위원회, 4층에 내무위원회가 있었고, 또 3별관과 같은 마당을 쓰고 있는 4별관에는 2층에 외무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계탑 건물하고 덕수궁 사이에 국회도서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 2층에 문교공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아마 위원회는 지금 얘기한 게 거의 다일 것 같아요.

속기사실은 시계탑 건물인 본관 1층에도 조그마한 사무공간이 있었고, 2층에 '기차방'이라고 불리던 기다란 방에 속기1계가 있었어요.

이게 일제 강점기에 지은 건물인데, 이 건물이 '부민관'이라는 공연장이었대요. 그런데 저녁에 숙직할 때 순찰을 돌아야 하잖아요? 무대 뒤로 돌아가면 공간 천장이 시커멓게 뽕 뚫려 있었어요. 숙직할 때 여기를 순찰차 다니면 발소리가 쿵쿵 울리는데 부민관 시



절에 거기에서 여자가 목매달아 죽었다는 전설이 있어서 비라도 추적추적 내리면 등골이 으스스한 게 아주 곤욕이었지요.

○ **홍 : 옛날 태평로 시절에는 회의가 지금처럼 많이 열리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비회기 때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 **채 :** 민정이양 후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관계로 시국수습이다 뭐다 해서 공전상태가 많았어요. 가끔씩 회의가 열리는 경우가 많았고 항상 사무실 주변에는 데모 군중으로 소란스러웠기 때문에 근무 환경도 좋은 편은 못 되었어요. 그래서 무료한 시간이 계속되면 짬짬이 음악감상실이나, 고궁 산책도 하곤 했지요.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썰시봉’도 그때 동아일보사 뒤편 무교동 낙지골목, 지금 SK본사 자리에 있었는데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썰시봉에 앉아 있다가 오기도 하고 그랬지요. 나름 낭만이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 **홍 : 선배님께서 속기사로 근무하실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속기 실무를 하셨나요?**

○ **채 :** 속기록 발간이 급하지 않을 때는 한 짬이 들어가면 20분씩 교대하는 방식이었고, 익일 발간을 할 경우에는 10분씩 교대했어요. 그때는 대부분 위원회가 전부 한꺼번에 열리는 않았지만 어떤 때는 7~8개가 한꺼번에 열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계장님들이 흑판에다가 각 짬별로 속기 시간을 배정했어요.

그러면 2계 끝짬이 3계로 속기 교대시간 연락을 해 오면 3계에서는 그것을 받아 시간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착오가 생기거나 담당 계장이 계장회의 등 다른 업무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면 그게 핑크가 나서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위원회가 너무 많이 열리면 짬을 나누어서 주무는 이쪽 들어가고 부무는 저쪽 들어가고 하는데, 혼자 회의장에 들어갔을 때 뒷짬이 안 들어오면 연락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앉아서 계속 속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2별관·3별관에 속기 교대를 하러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탯냐, 먹었냐?’ 이게 하나의 유행이었어요. ‘탯냐’는 정신없이 굉장히 바쁘게 열심히 쓰느라고 혼났느냐는 뜻이고, ‘먹었냐’는 회의가 지체되

거나 정회돼서 별로 쓴 것 없이 나왔느냐는, 말하자면 속기사들만의 ‘전문용어’죠.

또 당시에 웃기는 얘기 하나 소개하자면, 이것도 물론 여의도로 와서는 각 회의실에 전자 시계가 있어서 해소된 일이지만, 광화문 시대에는 첫잠이 업무 교대용 탁상시계를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한참 2~3시간 지나다 보면 이 시계가 이상하게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다른 속기조가 회의장에 없을 때, 부무는 언감생심 할 수도 없지만 주무, 과에서도 갈구지 못하는 그런 주무는 시치미 뚝 떼고 한 3~4분 앞으로 시계를 돌려놓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3~4분 자기가 될 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15분, 20분 이렇게 빨라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예를 들어 ‘보사위원회 시계가 빨리 간다. 조심들 하라’고 그러면 빨리 가서 끊어 줘야지요. 정말 웃기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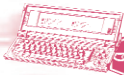
그리고 이것은 여담이지만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시험적으로 실시하던 주임속기사 업무를 할 때인데, 원고 검토에 자신이 없어서 담당 계장님의 허락으로 위원회 회의를 녹음하고 쉽게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한해서 녹음을 참고하는 정도로 원고 검토를 하기에 이르렀지요. 1960년대에는 국회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일반적이었으나 1970년대 이후 1980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전문직 출신 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전문 분야, 생소한 용어들을 많이 구사해요. 위원회 녹음을 처음에는 탐탁하게 생각지 않던 사람들도 차츰 대세에 편승하게 되었고 그것이 위원회 회의를 녹음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압니다.

○ **홍** : 선배님께서 속기하실 때 회의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 **채** : 물론 ‘3선개헌 날치기 통과’ 때이지요. 그때 정말 역사의 한 순간에 현장에서 속기를 담당했기 때문에 『한국속기50년사』나 『국회보』 2000년 1월호에 당시 상황을 회고한 글을 실어 놓았습니다. 그 글을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편집자 주 - 채강희 선배님 허락하에 회고록을 발췌해 게재하였습니다.)

“그날 초저녁까지 본회의장은 회의 대기 상태였다. 그러다가 오늘은 상황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전갈이 있어서 우리는 일단 사무실(국회 제4별관)로 철수했다. 언제 다시 회의가 속



개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울 무렵 국회 제2별관 4층(옥상 가건물)에 위치한 속기과장실로 와서 일단 대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불빛이 새어 나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다시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속기과장실 옆방인 전화교환실로 자리를 옮겨 쉬고 있었다. 새벽 2시경에 이르자 상급자로부터 지금 속기 준비를 갖춘 후 조심해서 제3별관 3층에 있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우리 일행은 2별관 후문을 나와서 평소에는 굳게 잠겨 있는 4별관 쪽 비상구를 통해 3별관에 이르렀다.

건물 전체는 불빛 하나 없이 캄캄했고, 3층에 있는 회의장도 어두웠다.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3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찾지 못해 허둥대고 있는데 누군가 손전등으로 통로를 비추어 주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무사히 회의장 안을 들어갈 수 있었다. 회의장은 캄캄한데다 여당 의원들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비좁은 터였다. 한참 동안을 헤매다가 결국 속기석을 찾기는 했으나 부족한 좌석 때문에 벌써 어떤 의원님이 선점하고 계셨다. 그래서 나는 '속기사입니다' 하고 자리를 양보 받고는 앉아서 비로소 사방을 살펴보았다. 커튼이 길게 내려진 어둠에 쌓인 실내는 밤하늘 별빛처럼 온통 담뱃불로 반짝이고 있었다. 이윽고 전깃불이 켜지면서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본회의가 개의되고 헌법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장내는 일시 소란스러워졌다. 우리는 녹음기(당시 소형 녹음기는 일반인에게는 잘 보급되지 않았음)를 회의장 한구석에 설치하고 녹음기용 무선마이크를 의장님에게 주었다. 회의장 스피커 반응을 살피던 의장님은 짧은 선이 붙어 있는 무선마이크를 고장으로 간주했는지 바닥에 내던지고 말했다. 의장석과 속기석이 불과 3미터 정도의 거리였지만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의장의 모습은 보이지도 않고 음성 청취마저 어렵게 되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의장석으로 달려가서 사회자석 탁자 위에 노트를 얹어 놓고 몸을 구부린 채로 속기를 해야 했다.

그런데 갑자기 출입구 쪽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공화당 김택수 총무의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쪽으로 몰려와요. 젊은 의원들은 빨리 문 앞으로 나와서 바리케이드를 쳐요!’ 라고 외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투표는 끝나고 헌법개정안은 결국 통과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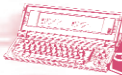
가결 선포를 마친 이효상 의장은 아무 말 없이 무표정하게 한참 동안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만 실수를 연발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의장님! 속히 산회를 선포하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이다. 내 나름대로는 평소 이효상 의장이 시인으로서, 문학도로서 오늘처럼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소용돌이 가운데 서서 엄청나게 큰일을 한 까닭에 갑자기 말문이 막혀 산회 선포조차 못 하고 서 있구나 하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래서 말문을 열어 드려야겠다는 일념으로, 그것도 몇 번에 걸쳐 감히 산회 선포를 재촉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의장은 이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대꾸조차 없었다. 결국 나도 역시 미구에 붙어닥칠 여야 간 충돌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체념을 하고야 말았다. 그런데 드디어 이 의장의 말문이 열렸다. 그러나 그것은 산회 선포가 아닌 국민투표법안을 상정하겠다는 실로 내게는 날벼락이요 천둥 같은 소리였다. 그 순간 나는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화끈거리는 얼굴을 숙인 채 입 안에서는 ‘의장님! 죄송합니다’ 라고 중얼대면서도 업무에 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20여 분 만에 모든 상황이 끝났다. 회의장을 빠져나온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농성하고 있는 본회의장과는 반대 방향인 동아일보 쪽 무교동 길을 향해 질서정연하게 걸어갔다.

뒤늦게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야당 의원들이 텅 빈 심야의 태평로 한복판에서 고성과 절규로 그 부당함을 외쳐 보았지만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우리는 2별관 3층에 있는 속기1계 사무실에서 번문 작업을 서둘러 마치고 일행과 함께 청진동에서 해장국으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 귀가를 하려는 참이었다. 조간신문(한국일보 1969. 9. 14) 1면 머리기사에 속기석에 앉아



있는 내 사진이 크게 실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3선개헌안 국회 통과' 라는 제하였다.
 순간 나는 도망치듯 허둥대며 시내버스에 올라탔다."



태령로 의사당 제3별관 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3선개헌을 위한 국회본회의 장면
 당시 조간신문 1면에 보도된 사진으로 뒤돌아 보는 사람이 채강희 속기사이다.(1969.9.14)

〈『한국속기50년사』중에서〉

○ 흥 : 앞서 이야기하신 3선개헌 이외에 다른 에피소드들은 없었나요?

○ 채 : 제 기억으로는 '속기사 공상(公傷) 사건' 이 있었어요.

자유당 정권 때 유효룡 씨라고 대선배이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회의장에서 속기를 하고 있었대요. 당시 국회의원 명패는 참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로 명패를 만들었어요. 그 때 어떤 국회의원이 화가 나 가지고 발언자한테 자기 명패를 집어던졌는데 당시 속기석에 있던 유효룡 그 양반 머리에 맞은 거예요. 피가 철철 나는 상태에서라도 어쩔 수 없이 속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후 장기간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결국

그 사건을 계기로 명패는 속이 빈 플라스틱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비슷한 예로 5·16 이후에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담배를 피웠는데 재떨이도 양으로 아주 가볍게, 집어던져도 괜찮을 재질로 바꿨지요.

또 국정감사나 예산 심의 때가 되면 피감기관 같은 데서 국회의원들 자리에 담배 한 갑씩을 다 놓아두곤 했지요. 때로는 담배를 못 피우는 국회의원들이 속기사들한테 주기도 했는데, 자욱한 담배연기 속에서 회의하는 모습이 당시 국회의 모습으로 기억됩니다. 회의장 내 절대 금연인 요즘에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죠.

또 내가 직접 겪은 일로는 6대 국회 때 동아방송 제작과장 조동화 씨라는 분이 테러를 당했어요. 그래서 ‘정치테러사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서 현장검증을 간다는 거예요. 현장검증에 속기사도 같이 가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휴대용 녹음기도 없고 전기로 꽂아서 쓰는 릴 녹음기밖에 없었어요.

김봉환 위원장하고 박한상 의원, 이병희 의원, 대검 차장검사인 김일두 검사하고 같이 갔는데, 먼저 성수동 조동화 씨 집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사건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실제 사건이 일어났던 새벽 1시경에 출발을 해서 한양대 앞을 경유, 마장동으로 해서 테러를 당한 장위동 뒤 야산으로 갔어요.

나는 당시 지프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위원장님이 앉아 계셨고 운전석과 위원장 그 가운데에 방석을 높이 괴어서 그 자리에서 속기를 했어요.

현장에 도착해서는 어느 지점쯤 가서 괴한이—정보기관 직원인지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그 지점 지나가면서 여기에서 어떤 말을 했다, 어떤 말을 했다, 그러면서 장위동 야산까지 올라갔지요. 현장검증을 할 때 나는 노트에다가 그 말들을 다 썼어요. 깜깜한 밤에 야산에서 김봉환 위원장이 손전등으로 나를 비추고 나는 꿇어앉아서 속기를 하고, 진짜 현장속기를 그렇게 얼토당토않게 한번 했었지요.

○ **홍 : 혹시 선배님께서 속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발언자가 있으신가요?**

○ **채 :** 1965년도로 기억하는데, 당시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과 이희승 선생이 우리나라 한



글학계의 양 거두 아니겠습니까? 서로 자기 한글 법식이 옳다고 주장하곤 했는데……

문교공보위원회에 한글 맞춤법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심사를 하는데, 거기에 이희승 선생이 와서 증언하는 것을 속기했어요. 당시 이희승 씨가 동아일보 사장이었는데, 와서 한참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이희승 씨는 최현배 씨를 빗대 가지고, 그쪽 주장대로 한자 발음을 일체 인정하지 않으면 전차는 ‘번개딸딸이’, 비행기는 ‘날틀’, 이화여자전문학교는 ‘배꽃계집애오로지배움터’가 되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데 이렇게 20분을 쓰고 나오니까 도저히 변문할 재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속기노트를 가지고 동아일보사를 찾아갔지요. 2층 사장실에 찾아가서 이희승 씨한테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사장님 말씀을 제대로 옮기지 못했으니까 가르쳐 주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회의록을 만들어 낸 적도 있었어요.

○ **홍 : 혹시 선배님께서 근무하실 때 제헌국회 속기사분들이 계셨나요?**

○ **채 :** 김진기 씨라고 계셨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은 참의원 속기과장을 했던 분이예요. 사실 김진기 씨가 우리나라 속기계의 대부예요. 그 양반이 공헌도 상당히 많이 하고 그랬는데, 특히 초창기 국회 속기계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애를 많이 쓰셨지요.

건국이 되어서 이승만 대통령과 장개석 총통이 진해 별장에서 회담을 하는데 속기사를 내려보내라는 연락이 와서 군용비행기로, 당시에는 김포공항은 없었고 여의도에 비행장이 있었어요, 아주 소수 인원만 탈 수 있는 비행기인데 김진기 씨랑 허수 씨가 비행기 두 대에 나눠 타고 진해로 파견되어 갔지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장개석 총통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전부 영어로 얘기해 가지고 그때 옆에 황성수 외무부 정보국장(나중에 국회 부의장까지 지냄)이 귓속말로 통역해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참의원 때도 ‘5·16 혁명정부’에 의해서 내몰림을 당했고, 1980년대에도 신군부가 들어와서 그때도 국회 직원 정리 차원에서 또 내몰림을 당하셨어요. 5·16 후에 민정이양이 되고 한참 뒤인 1964년인가 1965년도에 들어오셨는데, 들어와서 속기 1계장을 했지요. 그러다가 속기담당관이라는 직제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담당관을 하다

가 속기과장이 되었지요.

그때 대한속기협회 회장이 김용태 의원인데 ‘YT’라고 굉장한 실세였어요. 김용태 의원이 속기협회 회장을 하고 김진기 씨가 부회장을 하고 이러니까 속기계의 위상이 막강했어요. 그래서 일부 직원 중에서는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속기협회가 제일 센 압력단체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곤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 봉급 외에 수당이라는 것은 엄두도 못 냈을 때예요. 그런데 속기과에서 먼저 속기수당이라는 것이 생기니까 다음 해나 그다음 해에 다른 과에서도 경위수당, 위원회 직원수당을 만들고,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따라올 정도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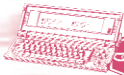
○ **홍** : 마지막으로 선배님께서 후배 속기사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채** : 제 좌우명이 ‘좀 손해 보고 살자’예요. 내 밥 다 찾아 먹는 식으로 세상을 살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하고 처세하기가 힘들어요. 한발 양보하는 게 그게 궁극적으로는 양보가 아니고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 여한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공직 생활을 하면서 몇 군데에서 같이 일해 보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오로지 속기 한길만 걸어온 것을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배님께 시간을 맞추려고 외부 출장까지 계획하고 있었지만 바쁜 후배들을 위해 흔쾌히 직접 국회로 오셔서 소중한 인터뷰에 응해 주신 채강희 선배님, 후배들의 속기계 발간 작업에 힘을 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홍보부 일동 -





외국의 속기업무 현황 - 미·일법원

황 유 진 기자

‘어 퓨 굿맨’,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 ‘부러진 화살’, ‘그래도 내가 하지 않았어’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영화의 대부분 장면이 법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법정영화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겠지만 여기에 속기사까지 등장하

게 되면 영화의 사실감이 한층 더 높아지는 느낌이다.

외국 법정영화에 나오는 속기사들을 보면 속기를 함과 동시에 속기기계에서 종이 인쇄되어 나오는 모습이 흥미로웠는데 그와 더불어 외국 법원에서 속기사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현황 및 위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이 무척 궁금해졌다.



영화 '크라이머 대 크라이머' 중

이번 호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속기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의 법원

법정에서의 모든 증언을 기록하고 필기록(Transcript)이라고 불리는 축어적인 기록을 만드는 법원속기사를 미국에서는 법원기록원(Court Reporter)이라고 한다.

각 연방지방법원은 연방사법협의회의 승인을 받은 수의 영구직 법원기록원들을 둘 수 있는데 평균수는 현직 판사 1명당 1명이다. 이들은 개개인이 법원의 특정 판사를 위하여 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연방사법협의회의 정책에 따르면 법원기록원들은 개별 판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법원을 위해 풀(pool)제로 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원기록원의 업무들로는 법원의 모든 재판 절차에 대한 축적 기록 작성, 모든 기소인부 절차, 유·무죄 인정 및 형사사건에서 양형 부과와 관련된 절차들에 대한 필기록 작성 혹은 해당 절차들에 대한 음성녹음 정리, 특정 절차로 판사 혹은 당사자 일방이 요청한 해당 절차에 대한 필기록 작성 등이 있다.

법원기록원들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 연방법원 고용인이지만 동시에 소송인들을 위해 작성한 필기록에 대한 사적인 수수료를 연방사법협회의에 의해 결정된 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법원기록원은 모든 필기록의 사본을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것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기록으로 열람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수수료 없이 열람할 수 있다.

미국의 공개법정에서 행해진 모든 재판 및 재판 전 절차는 법원기록원에 의해 축적적으로 기록되거나 음성장비에 의해 녹음된다. 특히 중죄사건은 법원기록원이 반드시 재정(在廷)하여 사건 진행을 녹취하도록 법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원치 않아도 법원기록원에게 보수가 발생한다. 미국 법원의 법원기록원은 재판이 끝나면 즉시 필기록을 작성한다. 피고인이 항소하거나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 녹취테이프에 의하여 필기록을 만드는 비용은 별도로 발생한다.

법원기록원은 재판상의 절차 및 판례집 발간에서 또는 발표자나 사회자가 말한 낱말이 문서로 쓰여진 필기록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구두변론이 진행된 당일에 속기록이 인터넷상으로 공개되고 있는 미연방대법원의 경우와 같이 법원기록원이 필기록을 제공하는 때에는 사실상 재판 홍보와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

2. 일본의 법원

일본 법원에서는 1957년 5월 1일부터 재판소 속기관 제도를 도입하였다.

재판소 속기관은 법정에 참여하여 소송당사자나 증인 등이 재판관의 앞에서 진술하는 것을 속기하는 사무 등을 담당하는데 그 주요한 직무는 쟁점이 중요하거나 복잡한 증언을 글자 하나하나 충실히 맞춰 기록할 필요가 있는 형사·민사 사건의 법정에 참여하여 피고인신문이나 증인신문 등의 발언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속기록의 작성을 위하여 법정에서는 속기 전용 타이프라이터를 이용하여 속기부호에 의하여 기록하고 재판 종료 후에 이것을 번



일본 법원속기사의 실시간 속기체계 시연 모습
(출처 : 재판소 속기관 제도를 지키는 모임 홈페이지
'www3.sokkikan.coco.jp/')

역하여 속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최고재판소는 당초 재판소 속기관 제도를 도입하면서 진술녹취는 모두 재판소 속기관에 담당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2370명(합의부에는 2명 이상, 단독부에는 1명 배치)의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1960년경부터 속기록에 대해서 기록이 방대해진다는 비판을 받게 되어 이에 따라 재판소 속기관의 총 정원을 935명으로 제한하게 되었고 속기관 양성 인

원도 감소하게 되었다.

최고재판소는 1997년 속기용의 특수 타이프라이터의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소 속기관 연수생의 신규채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고 1998년도로서 속기관의 양성·채용은 정지되어 2013년의 속기관 정원은 208명으로 감소하였다.

현재 속기관이 배치되지 아니한 법정에서는 재판소 속기관의 대안으로 민간 위탁에 의한 녹음번역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데, 속기관의 속기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녹음번역 방식은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재판소 속기관의 감소 추세에 대해 재판소 속기관 제도를 지키는 모임에서는 2009년 5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배심원 제도에서 배심원의 공정·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청각장애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나 배심원이 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속기에 의한 정보 보장이 필요하므로 재판소 속기관 양성을 재개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참조 : 임시규, 『외국사법제도연구(10) - 각국의 재판보조 시스템』, 법원행정처, 2011.

나의 잊지 못할 세미나

박 우 찬

2014년 하면 300여 명의 승객들이 희생된 세월호 사건을 잊을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안타까워하고 심지어 외국에서도 ‘최악의 인재’라고 일컬어지며 사회를 요동치게 했던 그 사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머릿속에서 쉽게 잊히지 못할 것이다. 그 당시 여론의 비판은 매우 거셌고 휴가나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 마치 죄악처럼 느껴지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때문에 평소 같으면 5월쯤 진행됐을 속기학술세미나도 이런 분위기에 맞물린 국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되었다.

세미나를 할지 안 할지 신경조차 쓸 시간도 없을 만큼 바빠 지나다 보니 어느덧 7월,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의 여운을 느낄 새도 없이 손부채질 횡수만 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인해 유아무야 넘어갈 줄 알았던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장소는 라데나리조트.

개인적으로 입사 후 두 번째 세미나였고 작년에도 2부 행사 도우미를 하기는 했지만 선발대로 참가하는 마음가짐은 뭔가 남달랐던 것 같다. 아마도 행사의 한 부분만이 아닌 전체를 책임지는 자리였기 때문이리라.

2014년 7월은 회의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래서인지 나로서는 예상 못 한 일정이었다. 하지만 세미나 자체가 국회 직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속기계에 몸담은 속기인들을 위한 자리이니만큼 꼭 필요한 행사임은 분명하다. 어쨌든 때가 때이니만큼 국회에서는 거의 참석하지 못하였고 몇몇 선배분들과 준비진만이 전부였기 때문에 수많은 선배님들의 뒤편까지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양 어깨가 더욱 무거웠다.

출발 당일 날씨는 매우 쾌청했다. 태양은 아침부터 따가운 햇살을 아낌없이 쏟아 부으며 우리에게 여름의 시작을 알려 주었다. 모두들 바쁜 와중에 나 혼자 일탈을 한 것 같은 기분 좋은 착각에 빠져 있는 동안 어느덧 목적지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 여유로움 역시 착각이었음을 금세 깨닫게 되었다. 도착하자마자 전날 출발했던 선배님들이 미리 체크한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하였다. 키 확인하고 음식물 배정하고 숙소의 청소 상태 등 놓친 부분이 없나 살펴보고 강의 장소 확인하고 안내 테이블 세팅하고…… 선배님들이 미리 해 놓으신 일을 확인만 하는 일인데도 해야 할 일들이 생각보다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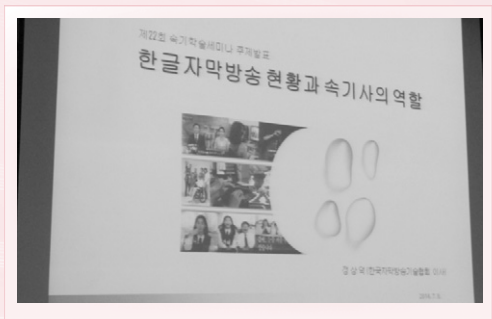


부라부라 정신없이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다 보니 벌써 한 사람씩 오기 시작했다. 총 참가 인원은 80명 정도로 국회를 비롯한 지방의회, 자막방송, 속기사무소, 복지대학 교육속기사분들, 원로 선배님들, 학생들, 그 중에 대구학원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온 학생생 두 명도 있었다. 작년에는 처음이라 정신도 없고 해서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 파악도 못 했는데 이번에는 낯익은 분들도 계셨고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지 새로 뵈는 분들도 내심 친근하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공이여 이승철 부회장님이 대독한 인사말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1교시는 정상덕 한국자막방송기술협회 이사께서 ‘한글자막방송 현황과 속기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셨다. 자막방송 초기 역사를 설명하면서 당시 방송 프로그램을 함께 준비해 주셨다.

두 번째, 윤진훈 방재시험연구원장님의 주제발표는 ‘법안심사, 어떻게 할 것인가?’ 였지만 당초의 주제발표는 자료로 대신하고 ‘강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무겁지 않고 재미있게, 말 그대로 강의의 본보기를 유쾌하게 보여 주신 시간이었다. 강의를 진행되는 동안 2부 행사 장소와 동선을 파악하고 준비



신하고 ‘강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무겁지 않고 재미있게, 말 그대로 강의의 본보기를 유쾌하게 보여 주신 시간이었다. 강의를 진행되는 동안 2부 행사 장소와 동선을 파악하고 준비

신하고 ‘강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무겁지 않고 재미있게, 말 그대로 강의의 본보기를 유쾌하게 보여 주신 시간이었다. 강의를 진행되는 동안 2부 행사 장소와 동선을 파악하고 준비



물 등을 챙기느라 강의를 주의 깊게 못 들어서 아쉬웠다. 그러나 앞으로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는 생각에 나에게 주어진 몫을 다하는 것에 충실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장소를 옮긴 후 먹음직스럽게 차려진 뷔페와 함께 속기학술세미나의 하이라이트인 2부 행사가 시작되었

다. 2부 행사는 야외에서 진행되었다. 넓지는 않았어도 사방이 탁 트인 곳에서 밥을 먹으니 야외회에 온 기분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러 다니는 사이에 위치한, 보통의 고시원 방 한 칸보다 조금 넓은 정도의 공간에서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게임의 참여도는 생각보다 높았다. 사람들이 부담 가지지 않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느라 며칠 전부터 고심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



었다. 풍선 멀리 날리기, 신발 정확히 던지기 등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지만 모두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재미있는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교육속기사분들이나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배

님들도 몸을 사리지 않고 임해 주셨다. 아마도 이사장님을 비롯한 선배님들께서 협찬해 주신 상품이 힘을 발휘한 듯했다.

지금 이 후기를 쓰면서도 웃음이 지어지는 일이 있었다. 2부 행사 도중 1등 상품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속된 말로 멘붕이 왔다. 태연한 척 게임을 진행하면서도 그 잠시





동안 등에서는 땀이 비 오듯이 흘러내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다. 나중에 다행히 찾기는 했지만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작은 소품 하나 잘 간수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님을 새삼 느끼게 된 사건이었다.



그렇게 레크리에이션이 무사히 끝나고 자연스럽게 저녁 술자리로 이어졌다. 작년과 달리 야외에서 하는 술자리라 더욱 운치가 있었다. 어느새 어두워진 주변을 은은하게 비춰 주는 조명이 어색한 자리를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었다. 처음 보는 사람들과의 새로운 대화, 선배님들의 속 깊은 이야기들, 끊이지 않는 웃음소리들이 분위기 있는 조명 아래에서 어우러지는 시간이었다.

이런 분위기는 밤늦게까지 계속됐다. 각 방마다 속기사라는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격의 없는 대화가 이어졌다. 그 와중에도 심부름하고 아침 일정 준비하시는 선배님 도와 드리고 하느라 정신없던 시간을 보낼 즈음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참가자께서 키를 갖고 집으로 가신 것이다. 두 번째 멘붕. 결국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연락해서 사건은 금방 종료되었다. 일이 잘 마무리되었기에 다행이었지만 어찌 보면 큰 사고가 아닐 수 있지만 왜 선발대가 미리 그렇게도 꼼꼼하게 준비하고 체크하는지, 그리고 나서도 끝나기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지 다시 한번 몸소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무난한(?) 밤이 지나가고 다음날 아침, 생각보다 늦게까지 이어진 이야기 자리 때문인지 늦잠을 자 버렸다. 부스스한 머리를 바라보자니 괜스레 허기가 느껴졌지만 아침 식사를 마치고 산책하시는 선배님들의 가벼운 발걸음을 보니 배고픔도 잊고 괜히 뿌듯한 미소가 지어졌다.

비록 이틀밖에 머물지는 않았지만 다채로운 추억을 심어 준 이곳의 기억을 되새기며 마지막 기념사진을 찍은 후 바로 점심 장소로 이동했다. 일정이 뻑뻑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내가 모든 일을 다 한 것도 아닌데 정신없었던 세미나, 하지만 그래서인지 그날 점심은 그 어느 때보

다도 꿀맛으로 느껴졌다. 그렇게 모든 분들과 잔을 부딪치며 다음을 기약하는 인사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쳤다.

일정 내내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함을 아쉬워했다. 하지만 동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열심히 하고 있음을 모두 이해하고 걱정했다. 속기인을 위한 학술세미나인만큼 비록 몸은 함께하지 못했어도 마음만은 함께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가 아닌 전체를 보고 챙기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된 자리였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아직도 어리바리한 후배를 잘 이끌어 주신 선배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올해로 두 번째 세미나이지만 이 자리가 모든 속기인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동시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만큼 값진 시간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더불어 내년 세미나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미 있는 자리에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함께하기를, 그래서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2014년 나의 잊지 못할 세미나의 후기를 마친다.





봄비 내리는 날의 일기



김 영 중

2015년 3월 31일

날씨 : 흐리다가 비

요즘 TV 드라마를 보면 이중인격 혹은 다중인격을 소재로 한 게 참 많다. 고급스럽게 병을 앓아서인지 아니면 그 안에 사랑을 버무려 놓아서인지 분명 환자가 주인공인데 이웃집의 사람 혹은 내 얘기로 여겨질 만큼 낯설지가 않다. 그만큼 현재를 산다는 것이, 살아 낸다는 것이 아주 많이 힘들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가운데 또다시 여의도에 3월이 왔다. 남쪽에서는 꽃망울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어디선가는 봄 축제가 열린다는데 우리는 아프게 3월을 맞이했다. 앞으로 몇 해를 또 그렇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하다.

작년 이맘때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배달된 꽃의 향기에 취해 추웠는지 따뜻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나는 그토록 까맣게 잊고 살았는데 어느새 다시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품어 내는 난을 보며 '아! 내가 엉뚱한 상상으로 이럴 때가 아닌데, 후배 속기사들과 선배님들께 뭔가 근사하고도 멋진 말로 인사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머릿속은 텅 비어가고 창밖에 비는 점점 굵어져서 팍팍한 3월을 적서 준다. 이 봄에 내리는 비는 조금 더 따뜻하고 촉촉한 4월을 약속하는 고마운 비, 단비다.

우리들은,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되어 한 해에 속기사 공채시험이 두 번 있었고 그 덕분에 88서울 올림픽이 잠실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릴 때, 합격 소식을 들었다. 10월 10일 첫 출근을 한 우리는 젊고 예뻐다, 적어도 내 기억으로는 확실히.

5공 청문회로 온통 나라가 들썩일 때 TV 화면에 클로즈업되던 수필 속기사들의 손놀림과 노트 그리고 속기문자에 햇병아리 속기사들은 어깨를 으쓱했고 원고지 사이사이 빈칸을 채워 주시는 주무 선배는 요즘 말로 “~느님”처럼 여겨졌다.

26년이 지난 지금, 문득 진심으로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봄비 내리는 오늘,

한 선배의 명예퇴직 송별회식이기도 하고 또 어떤 후배의 육아휴직 축하(?)회식이기도 하면서 지난 1년을 함께 지낸 가족 같은 동료들과 종파티를 겸하는 자리에서 누군가의 후배로 들어와 누군가의 선배로 지내나 싶더니 느닷없이 떠나야 하는 ‘나’의 모습을 보았다.

그때 우리를 맞아 준 따뜻한 선배님은 가고 없고, 이제 후배들이 착한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할 말이 없다.

사관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성실성을 지키면서 명예로운 공무원으로 살아야 하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천직이라는 말이 과연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이 먼지 나는 이곳 여의도에서 벚꽃 피어나는 4월을 기다리며 스스로 열정을 다해 살 수 있게 하는 것일까.

실제의 나와 되고 싶은 내가 서로 같지 아니하여 극도로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병을 앓게 되고 아픈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다. 아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의 기억은 다 잊은 채 그냥 일을 한다. 마치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의 설렘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또 일을 한다.

언젠가 그들도 나처럼 오늘을 기억하며 그리워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보스 (Boss)가 아닌 리더 (Leader)가 되고자~



문 선 희

- 의 - 의미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 정 - 정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 기 -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 록 - 녹록지 않은 현실의 삶 속에서
- 과 - 과하지 않게,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부서 내 사무관 승진예정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작년 승진후보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었던 것이 문득 생각납니다. 어안이 병병하면서도 무척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어느새 1년, 승진후보자 발표 후 신입관리자과정 교육을 받고 사무관으로 임용되어 현재 업무에 이르기까지 정신없이 지나 온 1년이었습니다. 맡은 바 역할에 충실했는지 돌아볼 틈도 없이 지나온 1년, 이제 새로운 사무관 승진예정자들을 보니 1년 전 열심히 신입관리자과정 교육을 받았던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신입관리자과정 교육은 관리자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공직관 확립, 창의적 입법지원 역량을 갖춘 관리자 양성 그리고 신입관리자에게 요구되는 리더십과 기본 자질 함양이라는 목표를 아래 총 6주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과편성도 국회법 관련, 의사표현 능력 관련, 자기계발 관련, 현장연수 등 분야별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25년 동안 주무관으로 일해 왔던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하고 또 새롭게 변화할 수 있게 해 준 교육이었습니다.

신임관리자과정 교육기간 내내 제 머릿속에 꽂혔던 단어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과연 리더십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는 ‘무리를 다스리거나 이끌어 가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껏 그려 왔던 리더십이란 거대한 힘으로 누르려는 지도자 모습이 아닌 소통을 통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창출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교육과정 중 한 강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보스와 리더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보스는 ‘나’를 중시하지만 리더는 ‘우리’를 중시한다, 보스는 ‘결과’를 중시하지만 리더는 ‘과정’을 중시한다, 보스는 ‘실수를 비난’하지만 리더는 ‘실수를 해결’하려 한다, 보스는 ‘가라(명령)’하지만 리더는 ‘가자(권유)’한다, 보스는 ‘수직적 명령(지시)’을 강조하지만 리더는 ‘수평적 관계(행동)’를 중시한다 등등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많은 답들을 들으며 앞으로 어떤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옆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호기심, 관심, 열정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수직적이라면 언젠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떠나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소통하면서 창의와 자율이 발휘되는 조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연결하는 조정자로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을 발전시키는 중간관리자로서 그 역할을 잘해 보고 싶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나쁜 보스의 사람들은 하나씩 떠나지만, 좋은 리더의 사람들은 하나씩 모여든다. 그리고 같이 뛰다.’라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오늘도 옆에 있는 동료들과 함께 눈을 맞춰 봅니다. 환하게 웃으며~~~



끝까지 간다

정 은 일

국회 속기사로 근무한 지 몇 개월 정도 지났지만 사실 실감이 나지 않았다. 2014년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새내기 합격수기를 쓰게 되니 오늘에서야 막연하게 키워 왔던 국회 속기사의 꿈을 이뤘다는 실감이 난다.

처음 속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다. 군 제대 후 진로를 찾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었고 친구를 따라간 속기학원을 통해 우연히 속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평소 타자에 관심도 없고 속도도 빠르지 않았던 내가 속기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지만 일반 2벌식 키보드와는 다른 방식이어서 오히려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기로 마음먹고 속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실력이 좋아졌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감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속기에 빠졌던 것 같다.

누구나 그렇듯 슬럼프가 찾아왔다. 빠른 낭독에 적응하기가 힘들었고 학원에서 매일 보는 실기 모의고사 점수를 확인하는 시간이면 6개월 넘게 향상이 되지 않는 나 자신이 너무 싫었다. 아무리 연습해도 제자리걸음이었고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많았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될 때까지 한다는 각오로 끊임없이 연습했고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빠른 기간에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다. 단기간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자만했었고 결국 당연히 붙을 것으로 예상했던 3급 시험에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실패의 원인을 찾기 위해 평소 잘못된 행동이 있는지 천천히 생각해 봤다. 빨리 1급을 따고 싶다는 생각에 정확도를 소홀히 하고 빠르게

치는 것에만 열중해서 연습했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 같다.

다음 시험에서 무조건 1급을 취득해 원래 목표였던 1년 안에 1급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 먹고 속기 연습에 매진했다. 이제는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생각할 때쯤 시험을 봤고 시험이 끝난 후 당연히 합격할 것으로 예상했다. 저녁 12시가 넘어서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결과는 불합격이었다. 절망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뜯눈으로 밤을 새웠다. 아침이 되자마자 점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는데 알고 보니 담당자의 실수로 합격을 불합격으로 잘못 처리한 것이었다. 바로 정정을 해 주겠다는 말에 계속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한 것 같다.

우여곡절 끝에 1급 자격증을 취득하니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거나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바로 국회를 준비한 것은 아니었다.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니 속기사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면 어떨까 하는 호기심이 많았고, 먼저 실무 경력을 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 국회 속기사가 되겠다는 꿈은 있었지만 짧은 기간에 합격하기란 너무 어려워 보였고 일단 취업을 하고 나서 공부를 병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다행히 '게임물등급위원회' 라는 공공기관에 바로 취업이 돼서 드디어 속기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처음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1년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속기사로 근무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나라에서 출시되는 모든 게임을 사전에 심사해서 적정 연령을 정하고 여러 가지 폭력성이라든가 선정성을 체크해서 등급을 분류하는 회의에서 속기를 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

내가 작성한 등급분류 회의록은 경찰, 검찰, 각 지자체, 소비자, 업자 등이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공유되었기 때문에 한 글자도 이상이 없도록, 또한 최대한 빨리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내가 배운 속기가 이렇게 보람된 곳에 쓰인다니 뿌듯했다. 이곳에는 속기사가 2명이어서 회의 2개가 동시에 열릴 경우에는 혼자서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



속기를 하였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 준비까지 모든 진행을 도맡아서 하였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던 중 국정감사 기간에 피감기관으로 국회에 파견을 나가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국회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긴장하게 했다. 회의장 화면을 보면 가끔 국회 속기사의 모습이 나왔고 나도 국회 속기사가 되어서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고 싶다는 꿈이 더욱 커졌다. 물론 근무하면서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지만 이제는 꿈꾸어 왔던 국회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쉽사리 다니던 곳을 그만둘 수는 없어서 일을 병행하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출퇴근 시간이 길어서 버스나 지하철에서 짬짬이 공부를 했다. 시험 날은 다가오는데 아직 진도를 다 나가지 못한 과목이 3개나 있었고 하필 그때 회사도 바빠서 시간을 내서 공부하기가 더욱 힘들었다.

결국 제대로 공부도 하지 못하고 2013년 시험에서 떨어졌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시간을 허비한 것 같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기 위해 과감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시험까지 1년 동안 공부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직장을 그만두면 공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쉬지 않고 공부만 하기란 쉽지 않았다. 합격을 하려면 필기와 실기를 모두 준비해야 되는데 2013년에 필기에서 한 번 떨어지고 나니 실기를 준비해도 필기에서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우선은 필기만 생각하기로 하고 공부를 시작했다.

인터넷 강의로 이론을 공부하고, 어차피 문제를 푸는 시험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푸는 데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했다. 같은 이론 강의를 여러 번 들어서 개념을 완벽하게 하려는 것보다 오히려 1회독만 해도 기출문제를 풀면서 모르는 것을 다시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게 기억이 더욱 오래갔던 것 같다. 이론만 공부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두려운 마음이 많았는데 문제를 많이 풀면서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문제를 읽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건지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공부를 하던 중 국회 속기사 채용공고가 떴다. 다행히도 적지 않은 5명이었다.

떨어져도 다음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절실하지 않을 것 같아서 이번이 마지막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다.

필기시험 당일은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다. 작년 시험에서 시간 내에 다 풀지 못한 기억이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는 생각에 시간 배분에 신경을 많이 썼다. 필기시험이 끝나고 잘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인지 후련함보다는 2차 실기시험의 압박감이 느껴졌다. 실기에 자신은 있었지만 필기공부를 하는 동안 아예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다시 감각을 찾아야만 했다.

얼마 후 다행히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본격적으로 학원에서 실기 준비를 하려고 했으나 실기시험까지 날짜가 촉박했기 때문에 집에서 뉴스를 속기하면서 준비를 했다. 뉴스로 연습하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국회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 더욱 집중해서 속기를 했다.

실기시험은 긴장한 상태에서도 평소 실력이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습할 때도 실제 시험이라고 생각하고 긴장감 있게 연습했다.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에 온 누구를 이긴다기보다 혼자 실제 현장에서 속기를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면서 한결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됐다. 거기에도 실기 내용도 최근 다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서 속기 연습을 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 단계인 면접은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후 얼마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촉박하게 준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속기직 면접 기출 자료를 보기보다는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과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기로 했다. 면접 당일 모든 직렬 중에 내가 첫 번째여서 긴장할 시간도 없이 바로 들어가 면접을 시작해야 했다. 그래서 그런지 떨지 않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나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여러 질문에 대해서도 평소에 갖고 있던 나의 생각을 꾸밈없이 이야기했던 것 같다.

그렇게 정신없이 면접까지 쉬지 않고 달렸다. 최종 발표가 6시가 다 돼서야 나왔는데 그때까지



마음 좋으며 있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합격자 명단에 내 수험번호가 첫 번째에 있었다. '91000035', 아직도 그 번호를 잊을 수가 없다.

어느덧 3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의정기록과에 배치되어 근무한 지 이제 3개월이 되어 간다. 짧은 기간이지만 한 가지 느낀 것은 다른 일은 오랫동안 하면 완벽에 가깝게 할 수 있지만 속기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이다. 발언한 것을 발언한 대로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빼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조사나 문장부호 하나만 틀려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민을 해서 회의록을 작성해도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참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바뀌서 생각하면 경력이 쌓이면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에 안주하기 쉽고 무료함을 느끼기 쉽지만 속기사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점이 힘들긴 해도 나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직업이라 생각한다.

현재 국회 속기사를 목표로 준비하는 분들에게 국회 속기사는 힘든 만큼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하고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해 주고 싶다.

끝이 아닌 시작

손 아 영

「 가슴이 시키는 일 」

나는 5살 때 미술을 시작하여 디자인을 전공하고 6년간 디자인 회사를 다닌, 25년을 미술을 해 온 미술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속기를 운명적으로 만난 때는 2012년 6월이었다. 그 당시 나는 디자인에 대한 회의감이 들어 진로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히 실시한 적성검사에서 1순위에 속기사가 있는 것을 보고 정보 수집을 하다가 국회 속기사를 알게 되었다. 그때 신기하게도 바닷길이 갈라지듯이 앞길이 확 열리며 눈부신 빛이 나를 향해 쏟아지는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 받았다.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드디어 찾은 것이다.

속기를 굳이 해 보지 않아도 속기사가 천직임을 그냥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나는 평소 손이 빠르다는 말을 자주 들었고 손으로 하는 일에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불안정한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 안정적인 공무원에도 관심이 많았다. 25년 동안 한 미술을 포기하고 뒤늦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이 되었지만 그 고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2주 후 협회를 통해 250만 원이 넘는 속기 자판을 현금으로, 그것도 일시불로 질렀고 그렇게 속기와 나의 인연은 시작되었다.

「 속기사로서의 첫 발걸음 」

돌이켜 보면 속기를 할 때 늘 즐거웠다. 처음 자판 배열을 익힐 때는 출퇴근 버스에서 무릎에 손을 얹고 창밖에 보이는 글자들을 보이는 대로 쳤고 TV를 볼 때도 항상 속기를 했다. 회사 회식이 끝난 후 집에 와서도 음주 속기(?)를 할 만큼 속기가 재미있었다. 당시 직장과 병행하느라



시간이 없어 학원을 못 다녔기 때문에 부족한 음성 파일은 텍스트 음성변환 프로그램으로 대체했고 그게 실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그렇게 10개월 뒤 운 좋게 2급·3급 속기 자격증을 취득했고 1급도 적은 점수 차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습하면 합격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해 하반기 시험에서 손을 많이 떨어 1급 시험에 또 불합격하고 말았다. 원래 계획은 2013년 하반기에 자격증을 취득한 뒤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국회 시험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었는데 계획이 틀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시간을 더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1급이 없는 상태에서 국회 시험 준비를 위해 회사를 퇴직했고 1급은 2014년 상반기에 취득할 수 있었다.

「 후회하지 않기 위한 도전 」

몇 년간 다니던 회사 퇴직을 결정할 때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난다. 서른이라는 나이, 그동안 쌓은 디자인 경력, 불합격 시의 타격 때문에 퇴직 결정이 무척 어려웠지만 국회 속기직에 도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고 지금 안 하더라도 언젠가는 도전할 것 같은 예감, 아니 확신이 들었다. 어차피 언젠가 도전할 일이라면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도전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으로 2014년 1월 17일 시험공부를 위해 회사를 퇴직했고 그렇게 나의 30대는 설렘과 두려움이 뒤범벅된 마음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사였다. 공부 장소를 서울대중앙도서관으로 정한 후 서울대와 가까운 신림동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오랜만에 공부를 하니 공부 방법이 잘 기억나지 않고 예전보다 암기가 되지 않아 답답했지만 공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꾸준히 지키려고 노력했다. 속기는 필기공부를 하면서 매일 1시간씩 했는데 필기공부를 하느라 지친 상태에서 속기 연습까지 재미없게 하면 슬럼프가 올까 봐 예능이나 시사 프로그램을 보며 자판을 두드렸다. 힘들 때는 여건이 안 되어 자신의 꿈에 도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떠올렸는데 그러면 절로 감사한 마음이 들어 다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다.

1차 필기시험 합격 후 2차 실기시험이 문제였다. 자격증 시험장에서 손 떨림을 한 번 경험했기 때문에 실기시험장에서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까 봐 걱정이 많이 됐다. 해결책은 시험장과 비슷한 환경에서의 연습이라 결론 내리고 속기학원을 찾아 3주 동안 매일 8시간씩 열심히 실기시험을 준비했다.

드디어 대망의 시험 당일,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시험 전날 너무 긴장한 탓에 잠을 못 자다가 날이 밝아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시험 당일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죽 잔 것이다. 가족들은 모두 지방에 있어 날 깨워 줄 사람도 없었다. 천만다행으로 스스로 눈이 떠져 씻지도 못하고 부랴부랴 택시를 타서 제시간에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만약 그때 일어나지 못했다면 그 결과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게 허겁지겁 도착한 실기장에 의외로 응시자 다수가 나타나지 않았고 큰 부담 없이 무사히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었다.

어느 단계나 다 중요하겠지만 마지막 관문인 면접은 실수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기에 더욱 긴장이 되었다. 예상 면접 질문을 선정해 부모님 앞에서 면접 연습을 했고 특히 나는 속기 경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갈지 준비를 많이 했다. 다행히 면접관님들께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크게 긴장하지 않고 면접에 임할 수 있었다.

사실 국회 속기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랐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합격하겠다는 욕심을 크게 부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물론 최종 발표 때는 엄청나게 욕심났지만 말이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므로 과정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는 대신 결과는 하늘에 맡기자는 생각에서였다. 이런 마음가짐이 힘든 수험 생활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 후회하기 싫어서 열심히 공부했을 뿐인데 합격이라는 큰 선물을 덤으로 받은 것 같아 정말 감사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국회 속기직 도전을 계기로 '나도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된 것도 큰 수확이다.



「 끝이 아닌 시작 」

국회 속기사가 되면 속기사로서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이라는 생각은 나의 크나큰 착각이었다. 흔히 아는 것이 많아야 속기를 잘한다고 한다. 이 말이 이전에는 그저 글자대로만 이해되었지만 원고를 하는 요즘에는 너무 와 닿아 비수처럼 가슴에 꽂힐 때가 많다. 일례로 회의 중 의원이 발언한 ‘허들 레이트(hurdle rate)’를 ‘허들 레이스’로 잘못 번문했을 때는 내 지식의 깊이가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폭넓은 지식뿐만 아니라 속기사는 체력도 중요함을 몸소 느끼고 있다. 처음 부서 배치를 받고 간 방에서 냉장고에 있는 한약을 봤을 때나 팔목에 살색 붕대를 감은 선배님들을 볼 때 속기사에게 체력은 재산임을 느낀다. 이외에도 빠른 판단력과 높은 언어 이해도, 집중력도 중요한 요건인 것 같다.

이제야 알았다, 속기자격증은 속기사가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요건들 중 하나일 뿐이고 나는 이제 그 조건 하나만을 겨우 충족했을 뿐이라는 것을.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그렇지만 처음 속기를 시작했을 때처럼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 언젠가는 훌륭한 속기사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끝이 아닌 시작이다.



될 때까지 한다

조 지 응

내가 처음 속기를 알게 된 것은 제대를 몇 달 앞둔 때였다. 학교 문제 때문에 정기휴가를 일찍 쓴 탓에 동기들이 다 휴가를 나갈 때도 홀로 부대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에 지휘관이 바뀌면서 '자기개발 포상휴가'라는 것이 생겼다. 어학 관련 시험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면 4박 5일씩 휴가를 주는 제도였다. 휴가에 목말랐던 나는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 1급 자격증을 취득했고 토익도 기준 점수를 넘어서 서너 장의 휴가증을 얻을 수 있었다.

포상휴가증을 얻기 위해 다음 목표를 찾던 중 속기사에 대해 알게 되었다. 나는 워낙 타이핑 속도가 느렸고 그 당시에는 사범대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따 두면 나중에 선생님이 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제대 후 바로 속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제대 후 그 어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 다른 친구들이 회식이다, 모임이다 놀러 다닐 때 부전공을 선택해서 공부했고, 수업이 끝나면 컴퓨터학원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언어를 배우고, 그것이 끝나면 속기학원에 가서 속기를 배웠다. 그래서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다.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속기를 제외한 다른 것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그렇지만 속기는 계속 제자리걸음이었다. 남들은 2년이면 한다는 1급 자격증을 난 2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1급은커녕 3급 자격증도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속기 자격증은 꼭 따고 싶었다. 그래서 부전공도, 컴퓨터 프로그래밍언어도 다 그만두고 1년 동안 속기 공부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1년 5월, 속기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국회 시험 공고가 났다. 지금은 12월 초쯤 내년에 있을 시험 실시계획이



국회 채용 홈페이지에 다 나오지만 그때는 국회 속기사를 채용할지, 시험을 언제 보는지 공고가 나오지만 알 수 있었다.

세 달밖에 시간이 없었다. 당장 책부터 구해야 했다. 부모님한테는 손 벌리기 싫어서 헌책방에서 책을 사서 정말 미친 듯이 읽었다.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다. 이때부터 나의 험난한 수험 생활이 시작되었다.

2011년, 첫 번째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치른 경험이 없었던 나는 학교 다닐 때처럼 문제를 한 번 풀고 나중에 검토하면서 답안지를 작성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마지막 행정학 열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지 못했다. 그래도 과락만 나오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정학에서 과락이 났고 결국 시험에 떨어지고 말았다. 실망이 컸지만 그래도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면서 위안을 삼았다.

2012년, 두 번째 시험을 치렀다. 1차 필기시험은 통과하고, 2차 실기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연습할 때 항상 96% 이상은 나왔기 때문에 평소 실력만 나온다면 합격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첫 번째 논설체 낭독이 시작됐다. 살면서 느껴 본 적이 없는 긴장과 함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타이핑을 하고 있는데 손이 떨려서 자판을 누를 수가 없었다. 두 번째 연설문 낭독할 때는 긴장이 어느 정도 풀렸지만 논설체를 망친 탓에 2차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하고 말았다. 그리고 또 한 해가 지나갔다.

2013년이 되었다. 시험장에서의 과도한 긴장이 불합격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실기 연습 방법을 바꾸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멍한 상태에서 논설체·연설체 모의고사를 보고 잠이 완전히 깬 후에는 얼음주머니를 준비해서 손을 얼려 놓고 그 상태에서 연습을 했다. 그 덕분인지 1차·2차 시험에 합격했고 마지막 3차 면접시험만 남겨 놓게 되었다.

그해는 4명을 선발할 예정이었고 면접시험에 6명이 올라왔다. 지금 생각하면 어처구니없지만 ‘설마 두 명 중에 내가 끼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면접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다. 2013년 국회 속기사 면접 첫 번째 질문이 “국회에서 본 나무 다섯 가지를 말해 보세요.”라는 질문이었다. 너무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고, 설상가상으로 나름대로 준비해 간 자기소

개도 답변 도중에 잊어버렸다. 국회를 나서면서 이번에도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합격자 발표일을 기다렸다. 3일 후 합격자 발표가 났지만 내 이름은 찾을 수 없었다.

2013년은 30년 동안 살면서 가장 힘든 해였다. 우선 면접에서 떨어졌고, 평생을 같이하자고 약속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한두 달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때는 가족들도 1년에 서너 명밖에 안 뽑



는데 국회만 준비하지 말고 다른 것도 해 보라며 눈치와 압박을 주기 시작했다. 그때마다 난 “올해 한 명만 뽑아도 합격할 자신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믿어 달라.”고 말했다.

그러던 중에 지방직에서도 속기 직렬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국회가 아니면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 칠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부모님이 아시게 되었고 지방직 시험을 치르라고 하셨다. 나는 3년 동안 공부한 것이 너무 아깝고 이번에는 꼭 합격할 자신이 있다, 만약 내가 지방직에 합격한 후 국회에 합격한다면 나 때문에 다른 한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부모님은 앞일은 모르는데 만약 이번에도 불합격하면 1년을 더 놀아야 되니까 이번 한 번만 자신의 뜻에 따라 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키지는 않았지만 지방직 시험을 치렀고 합격했다.

지방의회에서 일하면서 실무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지만 가슴 한구석이 쾅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던 중에 2차 실기시험을 보고 3차 시험을 치르게 되었다. 면접 준비를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떨어질 것이란 생각은 0.1%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합격자 발표일이 되었다. 2013년에는 오전 9시 30분쯤에 합격자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2014년에도 당연히 그때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오가 되도록 합격자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인사과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아직 결과가 나지 않아서 오후



5시쯤 결과가 나온다고 했다.

사무실에 앉아 멍하게 있었는데 오후 4시 30분쯤 옆에 있던 동기가 “오빠, 결과 나왔어요.”라고 해서 “내가 직접 확인할 테니까 열어 보지 마.”라고 했지만 그 동기가 나보다 먼저 확인하더니 “오빠 합격했어요.”라고 말했다. 그렇게 3년 만에 기다리던 순간이 왔지만 기분은 덤덤했다. 당장 계장님한테 어떻게 말할까 고민이 됐다. 다행히 잘됐다고 하시면서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2014년 12월 1일 임명식을 한 후 한 달 동안 연수를 받았다. 그리고 12월 26일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게 되었다.

내가 첫 번째로 들어간 회의는 본회의였다. TV에서만 보던 곳에 내가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 후에 상임위원회·소위원회 회의도 차례로 들어갔다. 모든 회의가 긴장되고 떨렸지만 특히 소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회의였다. 좁은 방에 열댓 명 정도의 국회의원과 행정 부처 고위 관계자들이 그 공간을 꽉 채우고 있었다. 내가 일했던 의회에서는 위원들이 항상 마이크를 사용했고 발언할 때도 ‘000 위원입니다’라고 대답한 후에 답변했지만 국회 소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자유롭게, 또 마이크도 없이 발언했기 때문에 발언자 체크하는 것이 매우 힘들고 또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아직도 발언자 체크하는 것이 어렵고 실수도 많이 해서 주무 선배님께 혼나고 있다.

이제 입사한 지 100일 정도 지났다. 물론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 어렵게 들어온 만큼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말은 바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 속기사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국회 속기사를 목표로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지방에서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꿈을 향해 계속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실시결과 보고

권 오 정 기자

I. 연수 개요

- 가. 수료 인원 : 78명(50개 의회)
- 나. 연수 기간 : 11. 5(수)~11. 7(금) [3일, 20시간]
- 다. 연수 장소 : 국회의정관 105호 강의실

II. 연수 목적

- 가. 지방의회 속기실무자들의 회의록 작성 능력 제고
- 나. 각 지방의회 속기실무자들 간 토론의 장 마련
- 다. 속기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실무교육 및 정보제공

III. 연수 일정

날짜 시간	11.5(수)	11.6(목)	11.7(금)
09:30 ~ 10:50	등록 및 입교식 (10:50) 특 강 (기록으로 소통하기) 조영기 국회 의정기록1과장	의회회의록과 한글 맞춤법 박종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교수	회의록 작성기법 - 특이사례 중심으로 - 최윤정 국회 의정기록2과 사무관
12:00 ~ 13:30	점 심		
13:30 ~ 15:20	비공개회의록 관계 법령 및 관리방안 장미경 국회 의정기록1과 사무관	회의운영 실무 박노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건강특강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완화) 이홍열 경희대 체육학과 겸임교수
15:40 ~ 17:30	행정사무감사 실무 강상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본회의장 참관 (16:00~)	수료식 (15:30~)



1. 지방의회 교육 1일차(11월 5일)

지방의회 교육 1일차에는 등록 및 입교식을 시작으로 총 세 분의 강사께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조영기 국회 의정기록1과장의 ‘기록으로 소통하기’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국회 의정기록1과 장미경 사무관의 ‘비공개회의록 관계 법령 및 관리방안’, 강상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행정사무감사 실무’ 등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2. 지방의회 교육 2일차(11월 6일)

지방의회 교육 2일차에는 박종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교수의 ‘의회회의록과 한글 맞춤법’, 박노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의 ‘회의운영 실무’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실무교육 후 국회 본회의장 참관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3. 지방의회 교육 3일차(11월 7일)

지방의회 교육 3일차에는 국회 의정기록2과 최윤정 사무관의 특이사례를 중심으로 한 ‘회의록 작성기법’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홍렬 경희대 체육학과 겸임교수의 ‘근골계질환 예방과 완화’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수료식이 진행되면서 3

일간의 교육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4. 미니 인터뷰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교육을 마치는 날 이번 교육이 처음이라는 2명의 남녀 속기사와 짧지만 신선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하남시의회 김영찬, 과천시의회 이해영 속기사를 만나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교육의 개선점과 그들 나름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젊은 2명의 속기사들의 개선점 및 의견으로는 각 지방의회별로 조금씩 상이한 회의록 표기방법 통일화 방안에 대하여 서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한다는 점과 합숙연수나 연수기간을 5일로 연장하여 운영함으로써 더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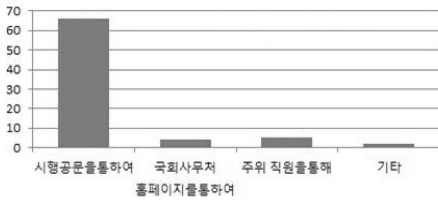
또한 회의록 작성 실무교육 비중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교육 참가자 간 자기소개 등 친목도모 및 정보교류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지방의회 속기사들의 처우 개선과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도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도 주었습니다.

짧은 인터뷰이면서 아직 많은 경험을 하지 않은 새내기 속기사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진행하려다가 진지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는 선남선녀 속기사 둘을 보며 저 또한 지금의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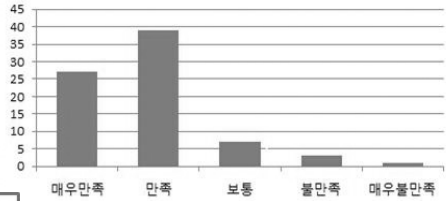


IV. 설문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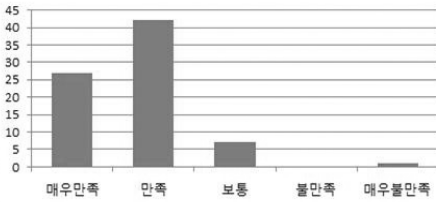
1. 본 연수과정을 알게 된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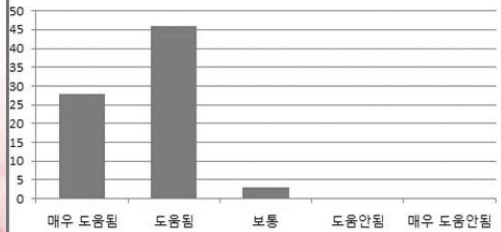
2. 연수 실시시기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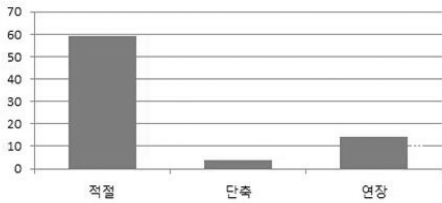
3. 연수과정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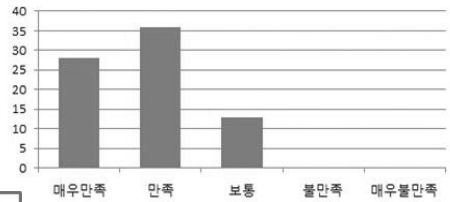
4. 직무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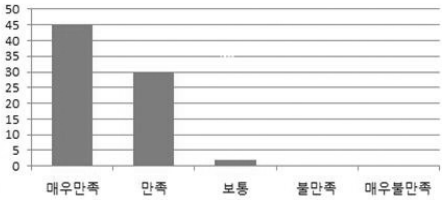
5. 연수기간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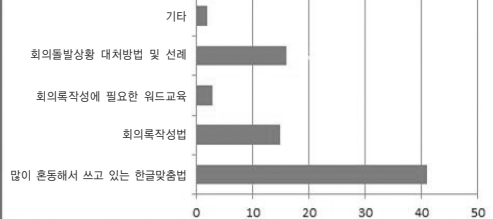
6. 연수시설 만족도



7. 연수운영 직원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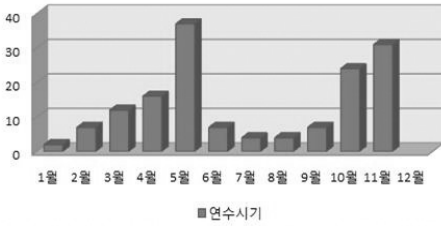


8. 희망 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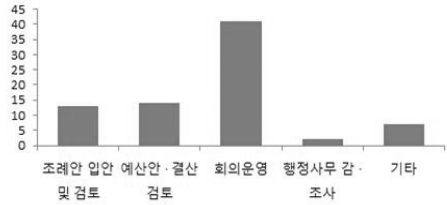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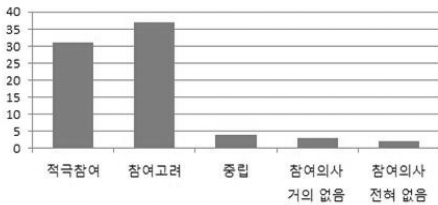
9. 희망 연수시기



10. 원격교육 시행시 희망 과목



11. 원격교육 시행시 참여의사



V. 기타 의견

- 대한속기협회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속기실무자인 강사와 진행자 등이 세세히 설명해주어 현장감 있는 교육이 되었음.
- 국회의원작성편람 발간 시 각 지방의회에도 한 부씩 배부하여 회의록의 통일성과 완성도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함.
- 개회 중인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제로 참관하는 일정이 마련되었으면 함.
- 고궁이나 박물관 견학 등 현장 수업을 신설하였으면 함.
- 속기사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하기 바람.

VI. 취재를 마치며

2014년도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교육은 앞서 있었던 교육과는 달리 대한속기협회가 전적으로 주관하여 연수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비공개회의록 관리방안, 회의운영 실무, 회의록 작성기법 등의 교육에서는 각 지방의회에서 있었던 상황을 서로 공유하며 더 발전적인 방안을 찾는 열띤 토론이 있기도 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교육이라서 더 소중한 시간임을 알아서인지 한 시간, 한 시간 열심히 연수일정에 임하는 모습에 저 또한 더 열심히 취재를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50개 의회에서 오신 78명의 속기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꿈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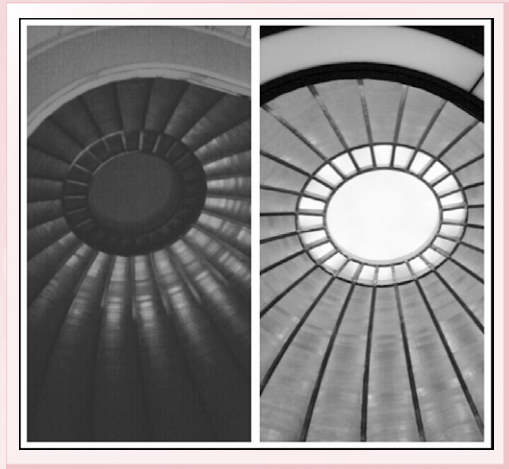
안 기 철

국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곳
 하지만
 인간의 자유 평등이 비롯된
 테니스 코트의 맹약을
 기억하라
 말없는 눈으로 매달려 있지만
 한때는 꿈은 피와 살이었다

배고프고 억울하고
 길들여졌다면
 여기 와 꿈을 수 있다
 이데아 비치는 동굴같은 돔 아래
 때론 열병 때론 침묵
 국민은 많고 많고 많다
 말하되 참말만 하기를

그리하여 아프고 아픈 응급실
 큰 목소리 작은 목소리
 이기고 지고의 아니다

근사한 치유의 장
 단지 먹기 위해, 단지 남기기 위해가 아닌
 소통과 배려를 위해
 밤낮으로 부릅뜬
 저 눈빛 두려워하기를



가족의 의미

안 기 철

난 저 분 딸 할래
난 저 아이 엄마 할래
가족은 선택형으로 고를 수 없잖아
아마도
서로 사랑하는 모든 짝들이
증표로서 반씩 닮은 아이를 낳아
그 사랑을 잘 키워내고 가르치라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끝까지 함께하라는
모든 신과의 약속
주어진 운명이라면 소박하고
만들어 갈 기회라면 웅대한
계약 이전의 사회
어릴 적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받은 게 너무 크면 짐 될까 배려함이고
늘어져 기억이 약해지는 건
돌려받은 게 적다 할까 경계함인가
미워해도 생각나고 말없어도 들리는
딱 그만큼의 사랑 울타리





보좌진이 본 속기사

공 생 관 계



박 대 길

블링블링 액세서리 하나 찾아보기 힘든 무채색 검정 옷, 고양이처럼 소리 없는 걸음, 무심한 듯 무표정하게 발언자를 바라보는 눈길, 쫓기듯 다급한 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질 때도 이해할 수 없이 느리게 움직이는 손가락…… 한컴 타자연습 평균 300타를 기록하기 위해 나는 손가락을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던가. 그들은 이상하다.

조금 더 지켜보자. 장시간 이어지는 회의, 그들은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들락거린다. 여야가 목소리를 높여 긴장감이 감돌 때도, 지루하게 이어지는 회의에 생리적인 하품을 억지로 참을 때도 그들은 조용하고 당연하게 문을 열고 무거운 회의장 사이를 가로질러 언제나 정중안을 차지하는 것이다.

‘인조인간?’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보좌진들까지 때때로 시선 둘 곳이 없을 때 하염없이 그들의 손동작이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볼 때도 그들은 동요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저들의 일부는 피와 살이 아닌 최첨단 인공지능을 갖춘 기계가 차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회의장에서 누군가의 발언에 반응하지 말자며 그렇게 다짐했음에도 때론 분노하고 때론 소심한 파이팅을 외치다 또 때론 실소하기도 하는 보좌진에게 무반응과 무표정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경외심을 주기도 했기에 그들을 알고 싶었다.

우린 그들을 '속기사'라고 부른다. 술 못 먹는 나라도 술자리에서 언젠가 누군가의 흑기사가 될 날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시절, 속기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지방 감사, 일상 같은 회의장을 떠나 그들과 함께 이동하며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는다.

뭐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에 수줍게 답례하는 모습은 사람 상대하는 데 이골이 난 보좌진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우린 전혀 다른 캐릭터를 가졌다.

웬지 모든 것이 빠를 듯한 속기사들은 너무 빨라서일까? 자신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이 드러날수록 속기사로서의 가치가 줄어드는 느낌이다. 선택받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을 홍보하는 정치인들로 꽉 찬 국회에서 그들의 존재는 종종 의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항상 선택받는다.

공식적인 의사결정의 순간, 역사의 현장에서 보좌진이 보조 의자라도 차지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속기사들을 위한 자리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상임위 회의장은 물론 때때로 기델 곳 없이 좁아터진 소회의장에도, 장관급 이상이 아니면 접근조차 어려운 본회의장에도 항상 속기사를 위한 자리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속기사들이 만들어 낸 회의록은 어떨까?

작은 글씨로 A4 용지를 가득 채운 회의록은 보는 순간 숨이 막힌다. 보기 싫다. 읽기 싫다. 그래서 볼 일이 없다. 그런데 봐야 할 때가 있다. 국회에 처음 들어온 보좌진에게 회의록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 준다. 부처 업무보고 등 국회의원의 질의서를 준비해야 할 때 회의록은 흐름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어디 이뿐인가. 증인이 거짓말을 못 하게 하는 증거가 되어 줄 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 명약(名藥)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보면 보좌진과 속기사는 참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흔히 보좌진은 ‘그림자’로 비유되곤 한다. 국회의원의 앞이나 옆이 아닌 뒤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을 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속기사와 보좌진은 어떤 관계일까? 속기사는 기록하고 보좌진은 그 기록을 활용해서 새로운 자료로 만들어 국회의원을 통해 세상에 내보낸다. 그리고 다시 속기사의 기록으로 빛을 발하는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과 속기사, 보좌진이 절묘한 트라이앵글을 만들어 냈을 때 세상의 주목을 받기도 한다.

그래, 우린 공생관계다. 전혀 다른 듯 닮았고, 비슷한 듯 다르다. 그렇기에 서로에게 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속기사나 보좌진이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진 않지만 우린 서로를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우리 함께해요 ^^



박대길 보좌관은 2004년 국회 생활을 시작하여 17대, 18대를 거쳐 지금은 황인자 의원실에 재직 중이다. 저서로 이슈파이터(2013), 낚시정치(2014) 등이 있으며, 아름다운 아내와 귀여운 아들딸을 둔 평범한 아빠로서 ‘이슈파이터 박대길의 세상보기’라는 블로그를 통해 세상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아프리카 · 중동 해외국감을 다녀와서

이 수 경

갑작스럽게 글 한번 써 보라는 동기의 권유에 글솜씨 없는 난 조금 망설였지만 ‘해외국감?’ 하고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니 웬지 가슴이 설레 나도 모르게 하겠노라고 대답해 버렸다. 이런…….

여행이 아닌 업무로 타는 비행기는 왜 그렇게 타기가 싫던지, 최근 1~2년 전부터 해외국감 순서가 다가온다는 압박감은 또 얼마나 컸던지, 그래도 지금 떠올려 보니 가슴이 설레는 건 왜일까?

그 뜨거웠던 시간 속으로 한번 되돌아가 봐야겠다.

내가 다녀왔던 나라들은 북아프리카의 알제리 · 튀니지, 중동의 요르단 · 사우디아라비아 · 오만 이렇게 총 5개국이었다. 평상시엔 외교부에서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말리는 위협 지역들이다. 물론 가는 날까지 아프리카에선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여부가, 중동에선 IS(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테러로 인해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대충 짐을 싸 놓고 있자니 어느덧 출국일이 되었고, 집 떠나 제법 기나긴 일정이었기에 일단 아프지 말 것, 그리고 실수 없이 잘 버티고 오자는 각오를 다지며 파리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알제리는 직항이 없고 파리를 거쳐 들어가는 게 편하다고 함.) 파리공항의 입국심사대에서 CAS 속기기계를 보고 “이게 뭐냐?”는 질문에 당당하지만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스테노그래픽……”, 돌아온 대답은 “Oh, beautiful” “……??” 그래도 예상했던 거보다 수월하게 통과해 주니 스스로가 기특했다.



1. 알제리

알제리 도착 후 첫 느낌은 뭔가 음침한 분위기랄까, 축 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선입견 때문일까, 거리의 사람들도 눈빛이 부드럽지 않아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아침 일찍 한 의원님께서 식사 후 호텔 앞 산책을 좀 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사관 직원분께서 단호히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잠깐이라도 나가시려면 경호를 붙여야 한다고 했다. 나중에 관저만찬 때 들은 바에 의하면 대사관 직원분들도 집과 대사관만을 오가고 일체 외출은 하지 않는다고 한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폭탄 테러 때도 대사관에서 불과 몇 미터 내의 장소에서 폭탄이 터져서 대사관 창문이 다 깨져 버린 일도 있고, 우리 국감팀이 도착하기 며칠 전에 IS의 프랑스 산악인 참수사건이 벌어진 지역도 알제리 외곽 지역이었다. 외교관들도 알제(알제리의 수도) 시내 밖의 지역으로 나가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만 나갈 수 있다고 했다.

감사가 끝나고 의원님들과 함께 대우건설의 엘하라시 하천정비사업 현장에 들러 애로사항도 듣고 악취를 풍기던 썩은 강이 우리나라의 양재천이나 청계천처럼 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조깅도 하는 모습으로 변모하게 될 날까지 힘내시라고 격려도 해 드리고 남은 시간에 티파자(Tipaza)를 찾았다.

‘이방인’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알베르 까뮈가 조국을 위해 고뇌하며 날마다 찾아가 글을 썼다는 티파자로 걸어가는 길에, 번성했던 로마시대의 흔적들이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관광객들에 의해 밝혀



티파자의 비석에 알베르 까뮈를 기념하는 글이 새겨져 있는 걸 감사반장님께서 친히 읽어 주시는 중

깨치고 닳아 있는 모습이 몹시 안타까웠다.

그렇게 첫발을 내딛은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에서 무사히 짧은 일정을 마치고 우리는 다음 목적지인 튀니지로 향했다.

2. 튀니지

감사 일정의 두 번째 나라였던 튀니지는 거리의 번쩍번쩍한 조명과 상점들, 높은 빌딩들, 알제리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튀니지가 훨씬 잘사는 나라구나’라고 생각했지만 GDP를 찾아보니 알제리가 튀니지보다 한참 상위권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회주의는 어쩔 수 없나 보더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또 튀니지는 바로 직전 알제리에서 느낄 수 없었던 보행의 자유를, 참으로 새삼스러운 기쁨을 느끼게 해 준 나라였다. 내 발로 내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거였다니 그동안은 전혀 모르고 살아왔구나.

게다가 지중해 연안 중앙에 자리 잡은 튀니지는 식당을 가건 카페를 가건 멀리 펼쳐진 지중해를 바라보며 목은 체중까지 털어버리고 가라는 듯 아름다운 경관을 선사해 주던 나라였다. 사람들 인상도 부드러웠고 난 개인적으로 튀니지가 참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라도 아들 손을 꼭 잡고 한번 다시 찾아오리라 마음먹었다.



혹자는 그리스의 산토리니보다 아름답다고 평한다는 튀니지의 '서디 부 사이드'에 올라 지중해가 내려다보이는 파란 대문의 카페에서 또 한 장 흔적을 남기고 왔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시작된 독재정권과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반정부 민주화 혁명인 ‘아랍의 봄’ 이후 2011년에도 계속된 튀니지의 ‘재스민 혁명’의 영향일까, 시디 부 사이드 거리와 카페에 재스민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었다.

비록 감사장이 너무 좁고 마이크도 울리고 테크는 대여해 놓았는데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mp3로 현장 녹음만 해야 했던, 요새말로 후덜덜(^)한 튀니지였지만 지중해가 늘 가까이 있던 너무나 아름다운 튀니지였기에 아쉬움을 뒤로 하며 튀니지로 인해 한결 가까워진 듯했던 북아프리카를 떠나 드디어 본격적인 중동 땅, 요르단으로 이동했다.

3. 요르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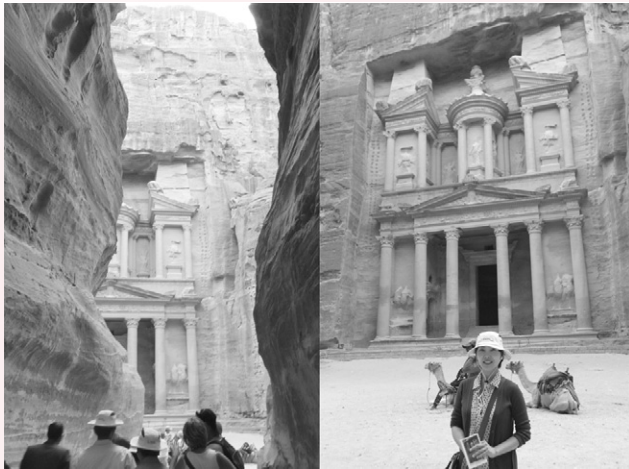
요르단에서의 이틀은 정말이지 어메이징 그 자체였다. 첫날 감사를 마치고 차로 3시간을 달려서 갔던 페트라에서의 장엄함은 직접 보지 않고는 어떤 말로도 부족하다.

페트라의 건물들은 바위를 반쯤 깎아 만들었고 좁은 통로와 수많은 협곡이 있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시크(Siq)’ 라고 하는 바람 골짜기인 좁은 통로를 따라 죽 연결되어 있는 기원전 1세기~서기 1세기에

건설되었다는 수도도 우리 일행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 독창적인 치수(治水)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나바테아와 로마, 비잔틴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도 건조한 이 지역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정착할 수 있었다고 했다.



바위산 협곡을 따라 죽 놓인 기원전 1세기경부터 만들어진 전기했던 수도. 왼쪽 하단쪽에 가로선으로 죽 보이는 것이 가까워서 보면 등그렇게 흠이 파인 수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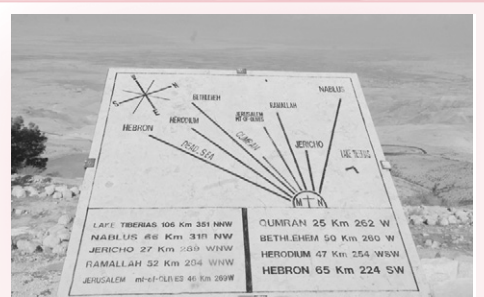
시크의 끝에 펼쳐진 바위 산을 깎아 만든 페트라의 명소 알카즈네(Al-Khazneh)

시크의 폭은 5m가 안 되지만, 반면에 양쪽 벽면은 높이가 수백 미터에 이른다. 바위 절벽이 높아 해를 가려 준 덕에 더운 줄도 모르고 장시간 걸을 수 있었다. 붉은 모래를 밟으며 걷던 길과, 좁은 통로를 따라 간간히 불어 주던 사막의 바람, 눈을 즐겁게 해 주던 바위산을

깎아 만든 으리으리한 건축물들이 눈을 감으니 사진처럼 눈앞에 짝 펼쳐진다. 모래바람을 몰고 낙타 등에 앉아 달리던 아랍의 소년들과 함께……

헬레니즘 양식으로 지어진 알카즈네 건물 정면에는 그리스의 신, 이집트의 신 혹은 나바테아의 신으로 추측되는 상들이 새겨져 있지만 정확한 규명은 불가능하다.

건물의 용도는 기원전 1세기 나바테아의 왕 아레타스 3세의 무덤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하며 트레저리, 즉 알카즈네라는 이름은 보물창고라는 뜻으로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곳에 보물을 숨겨 놓았다는 전설



노보산에서 내려다본 예루살렘과 예리고, 베들레헴, 사해 등등



요르단강 입구 - 저 입구를 지나 계단 몇 개만 내려가면 바로 요단강이 흐른다.

에 따라 붙여진 것이란다. ‘인디아나 존스 3편 - 최후의 성전’에서 이 알카즈네 안에 성배가 몇백 년간 숨겨져 있었다는 설정으로 나왔었다.

요르단에서의 두 번째 날 일정은 아마 성지순례로 왔다면 이렇게 다녔겠다 싶은 코스였다. 먼저 느보산에 올라 멀리 예루살렘과 여리고 등등을 내려다보고, 요르

단과 이스라엘 국경에 흐르고 있는 요르단강과 예수 세례터 등등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무교라 말하는 나도 뭔가 이상야릇한 감동이 느껴졌는데 크리스천인 동기가 이곳 요르단으로 왔더라면 더 큰 감동을 안고 돌아갔으리라……

이렇게 어마어마했던 2박 3일간의 요르단 일정도 무사히 막을 내렸고, 지금 생각해 봐도 이곳에서의 감사 일정이 유독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것이 당연한 일인 것 같다.

4. 사우디아라비아

눈으로 마음으로 큰 감동을 안고 요르단을 떠나 네 번째로 도착한 곳은 입국심사대에서 하루는 걸려야 통과한다는 그야말로 게으르기로 정평이 난 사우디아라비아다.



수도 리야드의 관공서에 걸린 사우디의 국기 앞

공항에 도착해서 TV에서나 보던 머리에 흰 터번을 두르고 칸두라를 입은 사우디 사람들이 신기해 보이는 것도 잠시, 평퍼짐한 칸두라를 입었음에도 가려지지 않는 도드라진 배와 입국심사대를 한 명 통과하고 한 20분 기다려야 또 한 명 통과하는 말로만 듣던 느려터진 일처리에 슬슬 지루함이 몰려 왔다. 성질 급한 사람은 그 기다림조차 너무 힘든 일일 것 같다.



오아시스 위에 골프장을 만든 기발함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 일행이 모두 통과되었고 관저만찬을 위해 외교단지 내의 관저에 도착해서 보니 여성이 한 분도 계시질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우디에서는 여자가 아바야로 온몸을 칭칭 감고 다니는 걸로도 모자라서 운전도 하면 안 된다고 한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이렇게 살고 있는 여성들이 있다니, 세계 여성인권 운동가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인 건지,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도 호텔방 밖에선(호텔 로비에서조차 아바야를 걸치고 다녀야 했다) 사진처럼 무조건 검정색 아바야를 입고 다녔다.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현혹시킬 수도 있으므로 여자는 검정색만 입어야 한단다. 이렇게 푹푹 찌는 나라에서 온몸에 검정색이라니……ㅠㅠ

다음 날 감사장소인 대사관에 도착했는데 체크가 없다. 알제리나 튀니지에선 후진 기계였지만 대여라도 해서 갖다 놓으셨던데…….

부랴부랴 스피커를 찾아 챙겨 온 라인을 연결하여 어찌어찌 녹음을 했다. 앞선 나라들에 비해 꽤 넓은 강당이 회의장이었는데 마이크 소리가 울려서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리지가



않았다. ‘그래도 mp3가 있으니……’ 하고 큰 걱정은 안 했지만 또 한 번 실감한 것, 현장에서 들리지 않는 건 녹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

사우디는 이슬람교의 근원지답게 하루에 다섯 번이나 되는 매 기도 시간마다 우리네 민방 위 훈련 때 들려오는 사이렌과 비슷한 수준의 사이렌이 울린다. 그냥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근처 모스크로 급히 걸어가는 남자들을 흔히 볼 수가 있었다. 바로 직전 요르단에서는 성지순례 같은 느낌의 코스였는데 바로 다음엔 이슬람의 근원지인 사우디에 와서는 수많은 무슬림들을 보고……

여기 와서 알게 된 참으로 놀라웠던 건 이슬람 박물관에서 본 계보에 어릴 적 성경에서 보았던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있고 그 갈래에서 나온 사람이 무함마드라는 것! 난 지금껏 이슬람교는 아예 다른 데서 생겨난 전혀 관계없는 종교인 줄로만 알았다.

이렇게 몰랐던 사실도 하나 깨우치고(^^;) 이슬람의 메카, 사막 위에 우뚝 솟은 사우디의 빌딩들을 뒤로 하고 마지막 국가인 오만으로 향했다.

5. 오만

드디어 마지막 나라인 오만!

이곳의 일정만 끝나면 드디어 집으로 간다는 설렘과 흥가분한 마음으로 갔던 오만은 중동, 이슬람, 사막 이런 느낌과는 거리가 먼 그냥 휴양지에 온 것 같은 아름다운 곳이었다. 여기도 중동이 맞나 싶을 정도로 푸른 산과 바다가 있었고 곳곳에 나무와 꽃이 있었다.

별 탈 없이 1시간 조금 넘긴 시간의 감사를 마치고 닥터피쉬가 살고 있는 냇가에 발도 담가 보고, 이제 다 끝났다는 후련한 마음에 오만이 더 아름다워 보였는지도 모르겠다.

오만은 8월엔 기온이 50℃에 육박하고 우리가 갔던 10월에도 38~40℃인 무척 더운 나라인데 중동국가 중에선 치안이 확실한 나라라고 하니 그 더위마저도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이제는 중동의 뜨거운 사막 바람이 그냥 따스한 바람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 땅에 나도 적응하고 있었다.

기계와 의사봉을 백팩에 짊어지고 2주 가까운 기간 동안 북아프리카와 중동을 다니면서 작게는 감기와 냉방병 걱정, 크게는 에볼라와 테러 걱정, 수많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출발이었는데 벌써 마무리 단계라니……

그렇게 두렵던 해외국감이었는데 다행히 사고 없이 건강하게 잘 돌아왔다. 막상 지금 생각해 보면 그곳이 은근히 그림자다. 앞으로 내가 살면서 또 언제 가 보려나 하는 생각에 더 그렇지 않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웬지 모르게 그리운 중동 땅이다.



제48회 정기총회

대한속기협회는 2015년 1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4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열린 이번 총회는 이동준 총무·재정이사 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성원 보고, 그리고 2014년 7월 30일 개최된 제22회 속기경기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시상 순으로 진행되었다.



제22회 속기경기대회 입상자는 금상 이소영 회원, 은상 김병효 회원, 은상 손정아 회원으로 시상은 이경식 부회장께서 해주셨다.

이후 회의에서는 회장님을 대신하여 이경식 부회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조영기 의장대리의 주재하에 진행되었는데, 이동준 총무·재정이사 의 회무 및 사업실적 보고에 이어 첫 번째 부의안건인 2014년도 결산 승인의 건은 결산보고와 조정구 감사의 감사결과 보고가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두 번째 부의안건인 201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역시 원안대로 승인되었다.

세 번째 부의안건인 임원 선출의 건은 감사 두 분의 임기 만료에 의한 새로운 감사 선출
로 고경효 · 정상덕 회원이 선임되었다.

네 번째 기타사항은 없었으며, 이상 4건의 부의안건 심의를 모두 마친 뒤 사단법인 대
한속기협회 제48회 정기총회를 폐회하였다.





편집후기

1월 총회 끝내고 한숨 돌리나 했더니 곧바로 세미나 한다는 소식!

세미나 때 “속기계”도 배부해야 되는데?

게다가 이번 봄에는 유난히 국회 일정이 빽빽했는데, 그 틈틈이 짬을 내서 51호를 만들어 준 홍보부장과 기자들 너무 고생 많았고, 글을 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경애 -

올 한 해는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업무로도 바빴고 심적으로도 속기계에 몰두하지 못했기에 막바지에 정말 숨차게 내달렸습니다.

밤늦게 남아서 원고를 읽고 편집후기를 쓰고 있는 지금, 눈은 아프고 머리는 몽롱하지만 정신만은 또렷합니다.

저에게 있어 51호 속기계는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준 책이었고, 동시에 주변에서 저를 도와주고 힘을 주는 고마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한 소중한 책이었습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 조윤희 -

휴~ 드디어 7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지난 속기계에 실었던 임시의정원과 제헌국회에 버금가는 내용을 실어야 한다는 중압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만 채강희 과장님의 인터뷰와 홍보부 팀원들의 응원 덕분에 이번에 태평로국회 기사도 무사히 실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속기사 조상님들의 음덕이 아닐까 싶네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의 사실을 반추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보다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속기협회 홍보부 일을 맡으면서 국회 속기과의 역사를 공부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험은 저 자신을 이해하고 속기과를 바라보는 시선을 넓히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한테 이런 좋은 경험을 쌓게 해 준 홍보부와의 인연을 앞으로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내년 속기계에서는 여의도국회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1975년 국회가 태평로에서 여의도로 옮겨온 이후부터 제5공화국과 9차 헌법 개정, 그에 따른 속기과의 위상 변화에 대해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아마 제 마지막 기획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 모쪼록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한 해 동안 속기인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속기사 파이팅!

- 이다교 -

벌써 또 한 번의 속기계를 마감하며 후기를 씁니다.

올해는 저 개인적으로 딱 한 번뿐인 아주 큰 행사(?)가 있어서 많이 참여를 하지 못해 더 아쉬운 마음이 들고 저희 홍보부 이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씩 더 발전하는 속기계가 느껴지시나요? 보다 더 다양한 내용이 채워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인 속기계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편집후기에는 이번 속기계의 아쉬운 마음을 더 채울 수 있는, 100%는 아니지만 99.9% 만족할 수 있는 기분이 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권오정 -

신참 기자로서 부족한 게 많았지만 이렇게 편집후기까지 남길 수 있어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속기인 누구나가 공감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알찬 글들로 속기계를 채워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 신동선 -

51호 속기계에서는 원로 속기선배님, 일본중의원 속기사, 지방의회 속기사 등 참 다양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시대와 국적은 달랐지만 속기라는 공감대만은 확실히 느껴졌다랄까요.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홍보부도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였네요.

축하드리고, 같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 유준호 -

투고를 바랍니다

속기계는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 상호 간의 유대와 속기 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 문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책임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생각과 정성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야겠지요. 저희 홍보부에서는 언제나 여러분의 글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대한속기협회 홍보부(국회 의정기록과)
02) 788-2373, 2473

홈페이지 : www.steno.or.kr

이 메 일 : chrisie76@assembly.go.kr

내 용 : 표지그림 · 사진, 연구논문, 수필, 회상기,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회비 납부 안내

회 비 : 1년분 20,000원(가입비는 10,000원)

협회발전기금 : 30만 원 이상을 납부한 회원에게는
평생회원으로서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보내실 곳

회 비 : 농협 301-0160-1418-81 대한속기협회

협회발전기금 : 농협 036-01-083485 대한속기협회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번문한 원고에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
TEL. 02)788-2371~6



제51호

속기계

발행 2015년 5월

발행인 이철우

편집인 오경애

기자 조윤희, 황유진, 이다교, 권오정, 신동선, 유준호

발행처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디자인·인쇄 동국상사 (02)362-3851

전화 02)788-2371~6

팩스 02)788-3386, 3387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번지(여의도동, 국회사무처 의정기록과 내)

홈페이지 <http://www.steno.or.kr>

비매품

“ 한국속기의 자존심 ”

전국 CAS속기 공인교육기관지정학원

오프라인 CAS교육학원

안정근속기학원 www.knsokgi.com · 교통 :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9호선 신논현역 5번 출구 · 전화 : (02) 3452-2255	성남한국속기학원 www.koreasokgi.com · 교통 : 분당선 태평역 3번 출구 · 전화 : (031) 757-1064
종로스마트CAS속기학원 www.sokgisa.com · 교통 : 1,3,5호선 종로3가역 2번 출구/2-1 출구 · 전화 : (02) 745-0811	수원컴퓨터속기학원 www.cassokgi.co.kr · 교통 : 1호선 수원역 1번 출구 · 전화 : (031) 268 - 3131
동방CAS속기학원 dongbangcas.co.kr · 교통 : 2호선 사당역 8번 출구 4호선 사당역 9번 출구 · 전화 : (02) 2055-1991	의정부고려속기학원 www.koreasokgi.co.kr · 교통 : 1호선 의정부역 5번 출구 · 전화 : (031) 845-1007
영등포CAS속기학원 www.onoffcas.com · 교통 : 1호선 영등포시장로터리 방면 5번 출구 5호선 영등포시장역 4번 출구 영등포 타임스퀘어 근방 · 전화 : (02) 2632-4948	울산한국속기학원 · 교통 : 신정시장하차>신정사거리에서 좌측신정나이스빌4층 · 전화 : (052) 261-1839
노량진신상디지털속기학원 · 교통 : 1호선 노량진, 9호선 노들역 5번출구 · 전화 : (02) 823-8741	광주속기학원 www.kjcas.co.kr · 교통 : 금남로1가, 문화전당역 출구, YMCA 옆 · 전화 : (062) 226-2117
인천속기학원 www.e-sokgi.com · 교통 : 부평역(북부역) 지하상가 27번 출구 신한은행 옆 골목 · 전화 : (032) 503-2999	대구한국컴퓨터속기학원 · 교통 : 1호선 중앙로역 1번 출구 · 전화 : (053) 252-1323

온라인 CAS교육학원

속기예듀 www.casschool.co.kr · 교통 : 2호선 강남역 12번 출구 · 전화 : (02) 522-1614	속기21 www.sokgi21.com · 교통 : 1,3,5호선 종로3가역 11번 출구 1호선 종로5가역 12번 출구 · 전화 : (02) 733-7000	속기뷰 view.onoffcas.com · 교통 : 1호선 영등포역 5번 출구 · 전화 : (02) 2632-4948
---	---	---



속기사는...

들은 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변문한 원고에 책임을 진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